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육학 박사학위논문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PEPC-MS)’
개념 탐색 및 척도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문 민 권

체육학 박사학위논문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PEPC-MS)’
개념 탐색 및 척도 개발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문 민 권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PEPC-MS)’

개념 탐색 및 척도 개발

지도교수 권 성 호

이 논문을 체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문 민 권

문민권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위원장 김 선 진 (인)

부위원장 최 의 창 (인)

위원 권 순 용 (인)

위원 전 현 수 (인)

위원 권 성 호 (인)

국 문 초 록

현대적 의미의 역량은 개인적 차원의 기능이나 지식적 수준을 넘어 가치를 포함하는 조직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경쟁 전략의 구성요소로 개념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심리적 역량은 역량 개념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체육수업에서 역시 심리 역량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교과 역량에 기반한 선행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교과 역량 기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도구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PEPC-MS: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Competency in Middle School)의 개념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1에서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에 따라 14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과 각 영역에 포함된 하위 요인별 개념으로 구성된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어서, 2차 및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구안된 모형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여 자기 성장 역량 및 공동체 참여 역량과 같이 2개의 역량 영역과 각 영역별 4개의 하위 요인 구조를 마련하고, 각 영역 및 하위 요인별 개념을 정의하였다. 세부적으로 자기 성장 역량의 하위 요인은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관리, 진취성, 전략적 문제해결력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체 참여 역량은 존중, 협력적 소통, 규칙 준수, 공동체 의식이 하위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2에서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가 진행되었다. 먼저, 델파이 조사 전문가 위원에게 요청하여 선정된 총 48개의 하위 요인별 문항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자기 성장 역량 4요인 18문항, 공동체 참여 역량 4요인 15문항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결정되었다. 개발된 척도는 내적 합치도, 문항-총점 상관 계수 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여,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해당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요인들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는 연구1에서 구안한 모형에 따라 중학교 체육수업 참여 학생들의 심리 역량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체육수업, 심리 역량, 자기 성장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학 번 : 2014-30522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3. 연구문제	9
4. 용어의 정의	10
II. 이론적 배경	11
1. 역량 개념	11
2. 교육과정과 역량	14
1) 시대적 배경과 교육적 요구	14
2) 핵심역량의 교육적 의미	16
3) OECD DeSeCo(Defining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17
4) 세계의 교육과정과 핵심역량	18
5)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과 역량	20
3. 교과 역량의 재개념화	26
1) 체육수업 실천 현장에서 교과 역량 반영	26
2) The OECD Education 2030	29
3) 교육과정 개선의 핵심 - 교과 역량의 재개념화	33
4. 체육수업 역량 관련 연구 동향	37

III. 연구 방법 43

연구 I.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 43

- 1. 연구 참여자 43
- 2. 연구절차 44
 - 1) 1차 델파이 조사 44
 - 2) 2차 델파이 조사 45
 - 3) 3차 델파이 조사 45
- 3. 자료분석 45
- 4.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의 타당화 절차 및 방법 46

연구 II.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47

- 1. 연구대상 47
- 2. 연구절차 48
- 3. 자료분석 49

IV. 연구 결과 50

연구 I.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 50

-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모형 구안 결과 50
- 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모형 타당화 결과 55
 -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모형 타당화 결과(1차) 54
 - 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모형 수정 결과 59
 - 3)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모형 타당화 결과(2차) 62

연구Ⅱ.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67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예비문항 개발	67
2.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67
3. 문항 적합성 및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 점검	72
4. 확인적 요인분석	75
5. 신뢰도 분석	81
6. 개념타당도 검증	81
1) 집중타당도 검증	81
2) 관별타당도 검증	84
7. 공인타당도 검증	85
8. 교차타당도 검증	88
1) 자기 성장 역량 교차타당도 검증	88
2) 공동체 참여 역량 교차타당도 검증	89
9. 집단 간 구인동등성 검증	91
1) 자기 성장 역량의 성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91
2) 공동체 참여 역량의 성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92
V. 논의	93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	92
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98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개발	98
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타당화	98
VI. 결론 및 제언	101
1. 결론	110
2. 제언	102
참고문헌	104

부록 115

<부록1> 텔파이 조사 질문지(1차) 115
<부록2> 텔파이 조사 질문지(2차) 118
<부록3> 텔파이 조사 질문지(3차) 125
<부록4>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본조사 설문지 134
<부록5>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최종 문항지 136
<부록6> 자기 성장 역량 1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137
<부록7> 자기 성장 역량 2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138
<부록8> 자기 성장 역량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139
<부록9> 공동체 참여 역량 1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140
<부록10> 공동체 참여 역량 2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141
<부록11> 공동체 참여 역량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142

표 목차

표 1.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18
표 2.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내 핵심역량	19
표 3. 체육과 핵심 개념	23
표 4. 체육 교과 역량의 의미	24
표 5. 교육과정 문서 내 역량 반영 정도 단계	36
표 6.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 맵핑 결과	36
표 7.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 내 OECD 역량	36
표 8. 체육과 교과 역량 관련 연구 동향	38
표 9.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4
표 10.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8
표 11. 대한민국에서 예견되는 미래 사회의 특징	51
표 1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안)	52
표 13.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53
표 14.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별 개념 정의(안)	53
표 15.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에 포함된 하위 요인별 개념(안)	54
표 16.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에 대한 타당도(의견)	56
표 17.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에 대한 의견	56
표 18.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의 타당성	57
표 19.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에 대한 의견	58
표 20.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구조 모형	60
표 21.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적 역량 영역별 개념 정의	60
표 22.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별 하위 요인 개념 정의	61
표 23.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타당성 응답	62
표 24.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에 대한 의견	63
표 25.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타당성 응답	64
표 26.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에 대한 의견	65
표 27. 최종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66
표 28.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예비문항	68

표 29. 각 문항별 기술통계 및 적합성	73
표 30. 모형분석의 적합도 기준	75
표 31.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6
표 32.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6
표 33. 3차(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7
표 34.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8
표 35.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9
표 36. 3차(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9
표 37. 최종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82
표 38.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개념신뢰도	83
표 39. 자기 성장 역량 하위 요인 간 결정계수 및 AVE	84
표 40. 공동체 참여 역량 하위 요인 간 결정계수 및 AVE	85
표 41.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한 척도 현황	86
표 4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하위요인과 준거 척도 간의 상관계수	87
표 43. 자기 성장 역량 교차 타당성 검증	89
표 44. 공동체 참여 역량 교차 타당성 검증	90
표 45. 자기 성장 역량의 성별에 따른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91
표 46. 공동체 함양 역량의 성별에 따른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92

그림 목차

그림 1. 체육 교과 역량 설정 근거	26
그림 2. 역량의 개념적 기본 구조	51
그림 3. 자기 성장 역량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7
그림 4. 공동체 참여 역량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8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미래 사회는 과거와 비교하여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육적 준비가 필요하다(김진하, 2016). 이에 따라 세계의 교육추세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학습자가 기존 교육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등장한 것이 역량(competency)이다(하민수 등, 2018).

역량(competency)의 사전적 의미는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발휘되는 능력’, 즉 ‘특정 상황에서 발휘되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취를 뒷받침하는 행동적(behavioral) 방향을 제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능력과 더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휘되는 능력을 의미하는 ‘competence’와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Deist & Winterton, 2005; Falender & Shafranske, 2007). 현대적인 의미의 역량(competency)은 McClelland(1973)에 의해 유사하게 제시되었는데, 그는 직무 분야에서 성과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개인적 특성을 역량(competency)으로 소개하였다. 이는 McClelland가 역량에 대해서 언급하기 이전까지 직무 분야에서 성과의 기준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능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역량은 등장과 동시에 심리학 분야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으며, 이후 많은 학자들은 동기이론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역량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Boyatzis, 1982; Dubois, 1993; Hamel & Prahalad, 1990; Spencer & Spencer, 1993). 이들이 제시한 역량의 의미에 대한 공통점은 역량을 특정 직무 분야와 상황에서 개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능력으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정성휘, 2004; 홍순정, 장은정, 서윤경, 2004). 이는 역량을 개인적 차원의 기능이나 지식적 수준을 넘어, 가치를 포함하는 조직적 차원에서 경쟁 전략의 구성요소로 개념적인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임효신, 2015).

역량의 개념을 탐색한 선행연구에서는 역량의 심리적 영역을 하나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면서 하위 요소를 구조화하고 있다(강운진, 2014; 이종범 외 2001; 이지연 외 2009; 임효신, 2015; Crites, 1978). 예를 들면, 임효신(2015)은 중학생의 진로역량개발 연구에서 역량의 한 영역으로 자기관리를 다루었으며, 자기관리의 하위 요소를 긍정적 자기개념, 자기이해, 사회적 기술로 구조화하였으며, 이지연 등(2009)은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과 태도 형성 영역을 5개의 진로 개발 역량의 영역 중 하나로 포함하였다. 또한, 임연 등(2008)은 개인적 및 사회적 발달 영역을 진로개발 역량의 한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Crites(1978)는 역량의 차원을 태도 차원과 능력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OECD Education 2030에서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변혁적 역량을 제시하면서, 변혁적 역량이 태도 및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이근호 등, 2017).

역량의 개념적 구조를 연구할 때 역량의 심리적 영역이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이유는 Spencer와 Spencer(1993)의 역량의 다섯 가지 개인의 내적인 특성이 심리적 요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Spencer와 Spencer(1993)는 역량이 지식, 기술, 자기개념, 동기, 특질과 같은 개인의 다섯 가지 내적 특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개인 내적 특성을 McClelland(1970)의 빙산모형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는데, 빙산모형에 따르면 지식과 기술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빙산의 가시적인 부분이라면, 자기개념과 특질 및 동기 등은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는 빙산의 아래 부분과 같이 내면에 위치해 감춰져 있는 영역에 해당된다. 눈에 보이는 빙산의 부분과 비교하여 수면 아래에 있어 보이지 않는 빙산의 부분이 현저하게 크다는 점은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역량의 심리적 영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량의 심리적 영역은 역량이 인과관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pencer & Spencer, 1993) 학습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즉, 동기, 특질, 자기개념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은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러한 행동은 교육적 성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역량은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표면으로 드러나 개발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신속한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지식 및 기술과 비교하여, 태도 및 가치 등을 포함하는 자기개념, 동기, 특질과 같은 역량의 심리적 영역은 역량 구조의 중간 부분 그리고 심층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교육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가 크다(민병모 등 역, 1998).

체육 분야에서도 역량의 심리적 영역은 교육적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이는 운동 소양(運動素養, sport literacy)의 관점에서 이해를 구할 수 있다(최의창, 2017; 최의창, 전세명, 2011). 운동소양은 운동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몸으로 무엇인가를 실행해낼 수 있는 역량(competence)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운동 소양의 요소는 크게 운동능(運動能), 운동지(運動智), 운동심(運動心)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심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의미하는 운동심은 내면에서 운동을 이끌어가는 내적 동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며, 운동능과 운동지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최의창, 2017; 최의창, 전세명; 2011). 즉, 운동 소양은 교육적 의미에서 현대적 역량(competency)과 유사한 개념이며, 동기적 측면을 가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역량의 심리적인 내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중요성과 교육적 의미들을 통해 체육수업에서 심리 역량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체육수업에서 심리 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체육수업 심리 역량과 개념이 무엇이고 어떠한 구조를 가졌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역량(competency)의 의미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미래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교육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임효신, 2015). 이러한 전환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개인의 보편적인 역량을 규명하고자 하였던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의미하는 역량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모든 심리사회적 자원까지 포함한 개념이며, 이를 핵심역량(Key competency)이라고 명시하고 있다(Rychen & Salganik, 2001, 2002, 2003).

OECD DeSeCo 프로젝트 이후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는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사회의 핵심인력인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춰 교육적 차원에서 핵심역량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자들은 미래 사회의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그 하위 능력 요인을 제안하였다(이미경, 서지영, 변희현, 이근호, 김기철, 유창완, 이주연, 김종윤, 윤기준, 2017). 특히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미래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윤현진 등, 2007; 이광우 등, 2009; 임언 등, 2008; 조대연 등, 2008)들이 진행되었으며,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곽영순 등, 2013; 이근호 등, 2013; 홍원표, 이근호, 2010)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역량을 찾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방법 및 모델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의 핵심역량과 체육과에서 학생이 함양해야 할 역량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체육과 교과 역량을 설정하였다. 또한, 체육과 교과 역량은 신체활동 가치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의 네 가지의 교과 역량으로 구성되었다(교육부, 2015). 학교 현장에서 체육은 새롭게 도입된 체육과 교과 역량에 따라 진행되게 되었으며, 교사들은

수업에 앞서 체육과 교과 역량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체육과 교과 역량이 현행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체육과 교과 역량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진의남 등, 2015). 이러한 이유는 체육과 교과 역량이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건강, 도전, 경쟁, 표현 등의 신체활동 가치에 덧대어진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창완, 윤기준, 2019; 유창완, 윤기준, 전세명, 2017; 정현철, 2018). 즉, 체육과 교과 역량은 신체활동 가치와 관련하여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 요소에 가깝게 개념화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박정준, 2017; 오승현, 2019; 윤기준, 2019). 건강, 도전, 경쟁, 표현 등 신체활동 가치는 대체적으로 종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체육수업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반해, 현행 체육교육과정에 제시된 체육과 교과 역량은 학습 내용과 관련된 기능 및 지식 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을 배워가는 과정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다. 학습 내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초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체육과 교과 역량은 신체 활동 가치에 덧대어진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도전, 경쟁, 표현 등의 신체활동 가치를 가르치는 각각의 학습 내용별로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을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교사는 새롭게 도입된 현행 체육교육과정에 따라 도전 영역에서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등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 영역에서 신체 수련 능력을 함양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결국, 현행 체육과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차이점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핵심역량 중심의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신체활동 측면의 내용 요소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이 부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육 수업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역량 중 심리적 측면, 즉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역량의 구조적 차원에서 태도 및 가치관을

포함하는 심리적 영역은 개념 탐색을 위한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체육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함양해야 할 역량과 관련하여 심리적 역량은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수업의 역량과 관련하여 심리적 역량은 향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를 위한 주제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의미와 구조 대한 기본적인 개념적 탐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체육과 교과 역량의 개념적 혼동의 문제와는 별개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교과 역량 기반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많은 연구들이 질적 연구 방법을 택하고 있었으며, 양적 연구 역시 일부 진행되고 있었다. 양적 연구의 경우 개발된 프로그램의 교과 역량 함양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권윤철, 2017)와 교과 역량 함양 체육수업 프로그램이 만족도와 자기효능감 등 체육수업 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남재식, 이영석, 2018; 이광훈, 2017)가 진행되었다. 양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로는 체육수업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학생들 개개인의 경험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과 교과 역량 함양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 도구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래로 교과 역량의 요소를 분석하고 하위요소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신체 표현 역량에 한해서 일부 진행되기는 하였지만(신민혜 조남기, 2015; 홍애령, 조미혜, 2019), 하위 요소 도출을 통한 구조를 정립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과 더불어 체육수업 현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체육수업 심리 역량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여,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역량 기반 수업 프로그램의 양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개발은 교과 역량 개발과 관련된 현장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 수업 현장에서 교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 역량을 학습을 통해 역량 함양에 기반을 둔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의 역량 함양 정도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진의남, 2015). 학생들의 교과 역량 함양 정도를 평가하는 일은 교과 역량 반영 체육수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윤기준 등, 2017), 평가적 측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량 함양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상하 등(2014)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 지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윤기준 등, 2017). 즉, 교사가 특정 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역량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강조하더라도, 실제 평가에서는 해당 수업의 중목 기능 습득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면 역량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평가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체육수업의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윤기준, 박정준, 2014).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는 체육 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평가 항목을 제작하는데 있어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역량적 요소들을 습득하고 개발하는 시기로 발달 단계적으로 볼 때,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평생 진로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임효신, 2015). 즉, 중학교 단계는 발달 단계적으로 후기 청소년기 즉 고등학교 시기와 성인기의 성공을 가져오는 복잡한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Lapan, 2004; Turner, Trotter, Lapan, Czajka, Yang, & Brissert, 2006),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시기는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체육수업이 대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체육수업 정상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체적, 기능적인 발달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학생 기간은 신체적 성숙과 정서적 미숙 사이에 내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Achenbach,

1991), 체육수업을 포함한 체육활동은 중학생 시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Azzarito & Soloman, 2006), 팀 스포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심리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기이다(Siedentop, Doutis, Tsangaridou, Ward, & Rauschenbach, 1994; Steinhardt, 1992). 결과적으로 중학교 시기는 심리적 측면에서 성장의 기회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체육수업에서 심리적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 탐색 및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심리적 역량 척도 개발을 통해 신체활동 가치와 교과 역량 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체육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체육수업 역량 개념 이해와 평가를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을 탐색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과 스포츠심리학 전문가, 스포츠교육학 전문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을 탐색한다.
 -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은 무엇인가?
 - (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구조는 어떠한가?

- 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2)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4. 용어의 정의

1) 핵심역량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로, 초·중등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인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이광우 등, 2008).

예) 자기 관리 능력, 공동체 의식, 정보처리 능력 등

2) 체육과 교과 역량

체육과의 신체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핵심역량 요소를 기반으로 체육 교과의 맞게 상황에 구성된 능력을 의미한다(서지영 등, 2015).

예)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등

3)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PEPC-MS: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Competency in Middle School)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학교 체육수업을 통해 길러야 할 인지, 태도,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능력을 의미한다.

예) 긍정적 자기인식, 전략적 문제해결력, 존중, 규칙 준수 등

II. 이론적 배경

1. 역량 개념

역량의 의미가 일관된 이론을 규명하거나 용어가 사용되는 모든 측면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다는 점에서 역량의 개념에 관한 혼란과 논쟁이 있어 왔다(Winterton & Deist, 2005). Norris(1991)에 따르면, ‘역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러한 이유는 역량이라는 의미가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정의되고 조작적으로 개념화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심오해지고 복잡해졌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oon & van der Klink(2002)는 역량을 ‘혼란스러운 개념’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교육과 직무의 차이를 메우는 유용한 용어’로 인정하고 있다. Snyder & Ebeling (1992)은 기능적 의미에서는 역량을 ‘competence’로 언급하였으며, 다원적 차원에서는 ‘competency’를 사용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직무적 역량을 언급할 때 일관되게 ‘competency’를 사용하거나(Boam & Sparrow, 1992; Mitrani et al.,1992; Smith, 1993) 둘을 동의어로 취급하고 있다(Brown, 1993, 1994). Elkin(1990)은 미시적 수준의 능력을 ‘competence’와, 고차원적인 속성을 ‘competency’와 관련지어 제시하였다.

역량(competency)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해 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성취 결과를 창출해 낼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역량이라는 단어는 20세기 초반부터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등 직업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McClelland(1973)는 현대적인 의미의 역량(competency)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그는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라는 논문에서 학업 성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맥락에서 보이는 성공을 예측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업무 수행자를 비교하여 성공과 관련된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의 내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의 관심은 이후 개인의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기반이 되었다.

McClelland(1973)가 현대적인 의미의 역량의 개념을 제시하면서부터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역량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Dubois(1993)는 역량을 개인이 자신이 속한 업무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동(behavioural) 특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역량 중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적인 역량을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Spencer와 Spencer(1993)는 McClelland(1970)의 빙산 모형에 근거하여 역량을 개인이 특정한 직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특성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역량의 내적 구조는 동기(Motive), 특질(Traits), 자아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과 같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Hartle(1995)은 역량이 우수한 직무수행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의 특성으로서 지식과 기술의 가치적인 역량과 특질과 동기와 같은 역량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Dooly 등(2004)은 역량기반 행동 자극을 지식, 기술 및 능력(역량;competency) 획득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수행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역량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또한 역량 자체의 하위 집합이기도 하다. 역량의 개념은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규명되고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직무 분야에서 개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능력으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지고 있다(정성휘, 2004; 홍순정 등, 2004),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능력으로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OECD(2003)에서는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개인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역량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DeSeCo 프로젝트(2006)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DeSeCo 프로젝트는 역량을 개인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복잡한 사회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 및 조직적인 심리사회적 자원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핵심역량(Key competency)이라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역량은 개인 및 사회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필수적인 자원이며 (Rychen & Salganik, 2001, 2002, 2003), 21세기 미래 사회의 청소년과 성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그 하위 요인을 함께 제안하였다 (이미경 등, 2016).

OECD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핵심역량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김기현 등(2010)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이러한 핵심 역량이 정규 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학습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이라고 하였다. 윤현진 등(2007)은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에 대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연구에서 문헌 분석을 통해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정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경험 등의 내·외적 특성으로 역량을 정의하였다. 또한, 핵심역량은 역량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사회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 기술, 태도, 경험 등 내·외적 특성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창환 등(2013)은 학생역량에 대한 연구과제를 통해 학생이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능력으로 학생 역량을 정의하였다. 학생역량은 학습 관련 역량(학습역량 등), 학생 생활 관련 역량(지적 역량, 공동체 역량 등),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진로능력, 시민성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교육과정과 역량

1) 시대적 배경과 교육적 요구

교육과정의 변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국가적 의지의 반영의 결과이며(장용규, 이정택, 2016), 교육과정에 역량이 도입되게 된 시대적 배경에는 다양한 사회 변화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는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환경과 자원문제 등이 해당되며, 많은 미래학자들과 연구자들은 미래 사회를 예측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적 대응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진하, 2016).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이근호 등(2012)과 김동영 등(2013)의 연구를 중심으로 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변화 방향을 고려할 때 교육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고려하는 요인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통계청(2019)에 따르면 2018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였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는 교육 수요의 변화를 가져온다. 출산율 저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가져오며,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교사대비 학생 비율 역시 낮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급당 교사의 수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로 인한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감소는 과거 다수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던 교육에서,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하였다(박재윤 등, 2010).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사회 구성원 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더불어 사는 것을 강조하는 다문화 교육, 인성교육을 길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이근호 등, 2012).

둘째,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역시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를 가져왔다(김진하, 2016).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보의 유통량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였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기초적인 정보 활용 능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중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였다(김동영 등, 2013).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지식을 선택하고,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에 더해, 익명성에 기대어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 윤리 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이근호 등, 2013). 또한, 과학 및 정보 산업 기술의 발달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들을 창출하였는데, 이러한 직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력, 종합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조장희, 2011).

셋째,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속성 및 사회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하여 환경 및 자원의 문제 역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정지선 외, 2009). 성장 중심 정책으로 인한 난개발로 인해 인류는 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Canton(2006)은 인류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중심의 성장 지향적 정책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김동영, 2013).

종합하면, 미래 사회는 공급자 중심의 단방향적인 전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지식의 축적에서 벗어나 지식을 선별하고 이를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인류와 환경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환경 개발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2) 역량의 교육적 의미

21세기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미래사회에서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교육은 특정 학문 분야의 지식과 기능의 학습을 넘어서 생활 전반에 걸쳐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로운 방향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탐색하며, 이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김기현 등, 2010).

교육적 차원에서 역량은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이다(이광우 외, 2009). 역량은 단지 이론적이거나 명제적 지식의 형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즉, 교육적 차원에서 역량은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 및 실천적 지식을 결합하여 다양한 상황으로 전이가 가능한 능력을 뜻한다(이근호 외, 2012). 이러한 역량은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학습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동영, 2013).

교육적 차원에서 역량에 대한 연구들은 범주와 구성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OECD DeSeCo 프로젝트(2006)에서는 자율적 행동하기, 상호작용적인 도구 활용 능력, 사회적 이질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와 같은 세 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2009)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는데, 여기에는 핵심 교과와 21세기 주제, 학습과 새로운 기술, 정보·매체·공학 기술, 생활 및 직업 기술이 속한다. 또한, Binkley 등(2010)은 핵심역량을 사고 방식, 학습 방법, 작업 기능, 일상 생활로 범주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광우 등(2008)은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비전 연구에서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시민의식, 국제감각, 진로개발능력과 같이 총 10개 영역을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역량으로 규명하였다. 더불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이근호 등(2012)은 인성 역량과 사회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인성 역량의 하위요인에는 도덕적 역량, 자아정체성 역량, 자기인식, 자존감, 개방성, 이해심, 배려/윤리를 도출하였으며, 사회적 역량의 하위요인은 사회생활 능력, 직무수행 능력으로 구분하여 규명하였다.

3) OECD DeSeCo(Defining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관련한 역량에 관심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OECD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서이다.

DeSeCo 프로젝트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7년부터 200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에서 생애학습과 교육 체제의 주요 목표는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유도하고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이러한 역량들을 함양시키는 것이었다(윤현진 등, 2007; 성은모 등, 2014). DeSeCo 프로젝트에 제시한 핵심역량은 다양한 삶의 분야에서 필요한 요구를 함양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된다(Rychen, 2003). 이러한 DeSeCo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교육과정 틀을 역량에 기반한 학습 시스템(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Eurydice European Unit, 2002).

DeSeCo 프로젝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역량과 그 하위 영역은 <표 1>과 같다(윤현진 등, 2007). 세 가지 핵심역량은 교육과정을 통해 획득하는 인지적 지식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술과 태도 및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즉, 개인의 삶을 성공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끌어 주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재와 미래 상황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다. 이는 특정 직무 또는 직업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의미의 역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소경희, 2006)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수준의 능력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성은모 등, 2014).

표 1.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범주	선정이유	핵심역량
1. 자율적 행동하기	-복잡한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실현할 필요성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할 필요성 -자신의 환경과 그 기능을 이해할 필요성	1-1.넓은 시각(big picture)에서 행동하는 능력 1-2.인생의 계획과 개인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능력 1-3.자신의 권리, 관심, 한계, 욕구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능력
2. 상호 작용적인 도구 활용 능력	-새로운 기술을 가져야 할 필요성 -도구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선택할 필요성 -세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성	2-1.언어,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 하도록 활용하는 능력 2-2.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하도록 활용하는 능력 2-3.기술을 상호작용하도록 사용하는 능력
3. 사회적 이질 집단에서 상호작용 하기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다룰 필요성 -공감의 중요성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3-1.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는 능력 3-2.협동하는 능력 3-3.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출처: 윤현진 등(2007)

4) 세계의 교육과정과 핵심역량

DeSeCo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들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는데(이근호 등, 2013), 그 이유는 기존의 교육체제와 교육방식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핵심 역량의 의미, 종류와 범주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표 2>,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을 반영하는 방식에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근호 등, 2012).

이처럼 핵심역량의 의미, 종류 및 범주를 나라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마다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에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따라 각국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를 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핵심역량을 선정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이근호 등, 2012). 결과적으로 핵심역량은 절대적이거나 고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며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국가별로 당면한 여건과 환경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며, 교육 목표가 무엇이나에 따라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을 수립할 경우, 교육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표에 대한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과정은 합의와 설득을 통한 인식의 통합이 먼저 필요하다(이근호 등, 2012).

표 2.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내 핵심역량

국가	뉴질랜드	독일 (헤센주)	영국	프랑스	호주 (빅토리아주)	캐나다 (퀘벡주)
핵심 역량	0 핵심역량 -사고하기 -언어·상징·텍스트 활용하기 -자기관리하기 -타인과 관계맺기 -참여와 공헌하기	0 공통역량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 -학습 역량 -언어구사 역량 0 교과역량 (교과 및 학년군의 특성에 맞게 공통역량을 재해석하여 제시)	0 역량 -사고역량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학습역량 ·문해력 ·수리력 ·ICT ·문제해결 ·의사소통 ·개인역량과 자질 ·의사소통 ·도덕적 역량 ·사회적 역량 ·고용자격	0 7가지 기초 지식과 기초능력 -모국어구사능력 -외국어구사능력 -수학의 주요 사항과 과학기술 지식 -정보통신기술의 숙달 -인본주의 소양 -사회성 및 시민 의식 -자율성과 주도성	0 간학문적 학습 -정보통신기술 -의사소통 -디자인, 창의력과 기술 -사고력	0 범교과적 역량 -지적역량 -방법론적 역량 -개인적·사회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 0 포괄적 학습 영역 -환경의식 및 소비자 권리와 책임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성과 공동체 삶

출처: 이근호 등(2013)

5)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과 역량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변화는 시대 변화에 적합하고 합당한 교육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적·국가적 의지의 반영이다(장용규, 이정택, 2016). 우리나라도 세계 변화에 맞춰 국가적 수준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역량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육, 직업세계, 평생학습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윤현진 등, 2007; 이광우 등, 2009; 임언 등, 2008; 조대연 등, 2008)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연구(곽영순 등, 2013; 이근호 등, 2013; 홍원표, 이근호, 2010)가 추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르치고 함양해야 할 역량을 규명하고, 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 및 모델을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국가수준에서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것은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연구 기관과 학자들에 의해 국가적 수준에서 다양한 핵심역량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곧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을 반영하게 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핵심역량과 교과별 역량을 교육과정에 제시하면서 각 교과에서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역량에 기반하여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역량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모든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 역량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장용규, 이정택, 2016). 뿐만 아니라, 각 교과에서는 총론의 핵심역량과 연계한 교과 역량에 따라, 해당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 교과는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 요소들을 교과에 맞게 선택하고 반영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해당 교과에 적합한 교과 역량으로 대체하거나 변경 및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 역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요소와 연계를 통해 공통의 기반을 마련하게 하였다.

(2) 체육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역량

체육과 교육과정은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통해 그 성격이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되었으며(김명수, 2017), 역량중심의 체육과 교육과정의 기반은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운동 기능을 중심으로 육상, 체조 등과 같은 종목군으로 구성되었던 반면에,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생활 기술(life skill)을 강조하는 건강영역, 도전영역, 경쟁영역, 여가영역, 표현영역과 같은 ‘가치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유정애 등, 2007; 윤기준, 2019). 가치 중심의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신체 활동의 목적은 활동이 가지는 가치(value)를 함양하고 도모하는데 있으며, 가치 중심 체육과 교육과정은 평생 체육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체육적 소양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장용규, 2008). 즉, 가치 중심 체육과 교육과정은 운동을 수행하는 능력과 운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체험하고 도모하는 것을 강조한다(장용규, 이정택, 2016).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신체 활동 가치를 기반으로 창의·인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 추구하는 창의·인성의 가치는 체육과에서 지향하는 신체 활동의 다섯 가지 가치 영역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모든 측면에서 포함되었다(장용규, 이정택, 2016).

장용규와 이정택(2016)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시기부터 체육과 교육과정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으며, 신체활동 가치와 핵심 역량을 다음과 같이 연계하고 있다고 하였다.

체육과에서 지향하는 다섯 가지 신체 활동의 가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 우리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core competency)과 관계된다.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자기 관리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 및 시민 의식,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과 관련된 핵심 역량들을 포함하면서도 체육과의 고유성을 반영한 대표 적인 가치 영역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안전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였고, 교육내용의 구성틀을 개선하였다. 또한, 학습량의 적정화를 위해 ‘핵심개념’이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핵심개념은 교과 학습이 이루어진 후 학습한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를 잊어버려도 교과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 내용이며, 체육과에서는 <표 3>과 같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5개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체육과 핵심 개념

영역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핵심 개념	건강 관리 체력 증진 여가 선용 자기 관리	도전 의미 목표 설정 신체·정신 수련 도전 정신	경쟁 의미 상황 판단 경쟁·협동 수행 대인 관계	표현 의미 표현 양식 표현 창작 감상비평	신체 안전 안전 의식

(출처: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자기관리 능력’,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능력’, 창의·융합 사고 능력, 정보처리 능력, 심미적 감성 능력 등의 6가지 핵심역량이 신체활동을 통해 교과 역량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3)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과 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앞선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선언적 의미를 넘어 비로소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마련되었다(장용규, 이정택, 2016). 체육과의 교육은 신체 활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 내용을 수행하면서 체육과의 역량이 길러지는 방식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역량을 설정한 것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이라는 영역을 기초로 체육과의 역량을 연계하기 위함이었다(장용규, 이정택, 2016; 유창완, 윤기준, 전세명, 2017). 즉, 체육과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역량은 신체 활동을 통해 요구하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습득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포괄하는 총체적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표 4>와 같이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의 네 가지의 교과 역량으로 구성하였다(교육부, 2015).

표 4. 체육 교과 역량의 의미

교과 역량 요소	의미
건강 관리 능력	신체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구성,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와 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
신체 수련 능력	자신의 신체적 수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수련 노력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경기 수행 능력	게임, 스포츠 등 유희적 본능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 상황에서 적합한 전략과 기능을 발휘하여 개인 혹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
신체 표현 능력	신체와 움직임을 매개로 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능력

출처: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2015)

이러한 체육과의 역량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 핵심 역량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체육과의 역량은 그 자체로 특

정한 일반 역량에, 일부는 다차원적으로 여러 일반 역량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교육부, 2015).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네 가지 체육과 교과 역량을 여섯 가지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건강 관리 능력’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적·환경적 건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신체활동의 수행을 통하여 신체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구성,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와 태도를 배양하고자 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건강 관리 능력’의 함양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차원에서, 자신을 수용하고 조절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적 삶의 태도와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healthy life style)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지속적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가는 기초가 된다. 또한, ‘건강 관리 능력’의 함양은 사회적·환경적 건강 차원에서, 모두 함께 조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와 존중의 공동체 의식과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의식 및 시민 의식을 갖도록 한다.

‘경기 수행 능력’은 게임, 스포츠 등 유희적 본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쟁 상황에서 적합한 전략과 기능을 발휘하여 개인 혹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경기 수행 능력에는 주로 경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 움직임 능력, 전략 구안과 적용에 관련된 문제 해결력과 상황 판단력, 경기 수행 상황에서 겪게 되는 협동, 책임감, 공정성, 배려 등의 태도가 경기 수행 능력에 포함된다. 특히, 경기 수행 능력의 학습은 경기 수행 중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조절하고 타인을 고려하는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공동체 의식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의 발달과 대인 관계 능력의 함양으로 연계될 수 있다.

‘신체 표현 능력’은 신체와 움직임을 매개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능력이다. 즉,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표현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움직임을 매개로 하여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주제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신체로 표현된 것을 심미적·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 움직임 언어와 표현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체 움직임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신체 표현을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이나 사물의 아름다움과 가치,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 1> 체육 교과 역량 설정 근거(출처: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2015)

3. 교과 역량의 재개념화

1) 체육수업 실천 현장에서 교과 역량 반영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즉 학생들이 인문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적 창조력을 갖추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 핵심역량이다. 또한, 총론에서 핵심역량 교육과정 제시와 함께 교과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는데, 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진행되었다(교육부, 2015). 앞서 언급하였듯이, 체육과 교과 역량은 핵심역량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6가지 핵심역량은 다차원적으로 연결된다.

한편, 현행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과 함께

체육과 교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업 실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현장의 체육교사들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량기반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으며(권택환, 2019; 남재식, 이영석, 2018; 이태구, 이한주, 2015; 천항욱, 2017), 교육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박정준, 2017; 박혜연, 2019; 오승현, 2019; 홍애령, 조미혜, 2019).

하지만, 이와 동시에 체육수업 실천 현장에서 교과 역량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역량 평가에 대한 한계점 역시 대두되고 있다.

진의남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현행 체육과 교육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교과 역량이라는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즉, 교과 역량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 유창완 등(2017)은 체육과 교과 역량을 체육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과 역량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교사는 학습 내용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개념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 역량 개념에 대한 이해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체육과 교과 역량에 대해 체육수업에서 학습하고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체육수업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는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실천적 차원에서 생산적일 것이다(김기철, 2017). 또한, 역량을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교육적 결과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유창완, 윤기준, 전세명, 2017).

하지만,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로 교과 역량을 인식하고, 역량 기반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이 역량을 얼마나 함양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역량기반 체육수업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교과 역량 함양 정도를 평가하는 일은 수업의 성패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이미경 등,

2017). 평가적 측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통한 역량 함양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상하 등(2014)에 따르면, 교육과정이 변화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과 지식 또는 기능에 대해 습득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수업 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새롭게 도입되더라도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였다(이미경 등, 2017). 즉, 교사가 체육수업을 통해 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역량에 대해 강조하더라도, 평가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수업에서 실시하는 종목에 대한 기능 습득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면 역량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수업의 목표와 평가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육수업의 효과는 크게 반감될 것이다(윤기준, 박정준, 2014).

따라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체계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과 역량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과 역량과 역량별 하위 요소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역량 체계를 신체활동 가치(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 교과 역량(건강관리 능력, 신체수련 능력, 경기수행 능력, 신체표현 능력) - 역량(내용 요소)의 차별적 개념과 위계를 설정하여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체육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서지영 등, 2019).

OECD에서 수행한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전반적인 교육체계 내에서 어떻게 역량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Education 2030(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The OECD Education 2030)

(1) Education 2030의 목적

OECD에서는 다가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 하위요인을 제안하였다(이미경 등, 2016). 이를 기점으로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핵심역량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서지영 등, 2019).

이어서 수행된 OECD Education 2030(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The OECD Education 2030)은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진 결과의 현장 진행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OECD Education 2030에서 ‘2030’은 2030년을 의미하는데, 2030년이 현재 교육과정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사회생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핵심그룹 세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이근호 등, 2017). 결국,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학습자 중심에서 웰빙을 성장의 궁극적으로 기본적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행위의 주체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제안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구현되는 방식에 대해 규명하였다. 이러한 점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핵심역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함양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규명하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서지영 등, 2019).

(2) Education 2030 학습 프레임워크(The OECD Learning Framework 2030)

OECD 학습 프레임워크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향을 제공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Education 2030에서는 학생들이 변화와 불안정한 미래를 살아갈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에 따라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찾고,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OECD 학습 프레임워크를 ‘학습 나침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서지영 등, 2019; 이근호 등, 2017)

OECD Education 2030의 학습 프레임워크의 핵심에는 ‘학생 행동주체(student agency)’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생 행동주체’ 개념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된다(서지영 등, 2019).

학생은 행동주체로서

첫째,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purposeful).

둘째, 학습 경험을 고려하여 반성적으로 행동을 실행한다(reflective).

셋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investment).

넷째,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법도 배워야 한다(responsibility).

또한, 학습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수준에서 변화 주체로서의 경험을 통해 학생 행동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OECD, 2017).

첫째, 개인의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된 학습을 통해 개인적 수준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를 위한 주체로서 다른 사람과 협력적 수준에서 함께 일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셋째, 학생은 커뮤니티, 사회, 지구촌 등 보다 확장된 집단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집단적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

학생 행동주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수준에서 변화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도 주체가 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3) 역량 개발의 체계

교육 분야에서 학생 행동주체는 삶의 다양한 수준을 위해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행동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OECD Education 2030에서는 학생의 역량 함양이 다음과 같은 순환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서지영 등, 2019; OECD, 2017).

첫째,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믿기 보다는 미래의 다양한 변화를 예상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anticipation). 이를 위해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요구되는 것을 예측하거나 현재의 행위가 미래에 끼칠 영향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예상을 위해 다양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식(역사, 환경 변화, 인구 통계 변화, 뉴스 등), 인지 능력(분석·비교 사고 능력, 일반 문제 해결 능력 등) 뿐만 아니라 동기, 정서, 헌신, 가치와 같은 사회·행동적 능력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 미래사회를 위한 역량과 관련하여 주체는 자신의 학습 발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해야 한다(action).

셋째, 학생 역량 함양과 관련하여 마지막 체계는 반성적인 실천이다(reflective practice). 반성은 어떤 것을 정하고 선택하며, 행동하는데 있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능력이다. 주어진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비교하며, 어떠한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행동이 현재의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향후 가져올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력까지 고려하는 것이 반성에 포함된다.

이러한 예측, 행동, 반성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긴밀하게 연계되고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미경 등, 2017). Education 2030은 이와 같은 학생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예측, 행동, 반성의 지속적인 순환 과정을 중요하게 간주되는데, 이를 변혁적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언급하고 있다.

(4) 변혁적 역량

Education 2030에 따르면 미래 사회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러한 특징을 갖는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 책임감 갖기, 긴장 및 딜레마 해결 등이 포함되고 있다(이미경 등, 2017). Education 2030(2017)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변혁적 역량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변혁적 역량은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 능력으로 지식, 기능, 그리고 태도 및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이근호 등, 2017).

먼저 변혁적 역량에서 의미하는 지식은 교과 지식(disciplinary knowledge), 간학문적 지식(inter-disciplinary knowledge), 인식론적 지식(epistemic knowledge)/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과 지식은 특정 교과를 통해 학습되는 지식을 의미하며, 과거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현재, 지식의 방대해짐에 따라 ‘빅 아이디어’나 ‘핵심 개념’은 교육과정 설계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OECD, 2013). 간학문적 지식은 다양한 렌즈(교과)를 통해 현실에서 일상의 문제나 현상, 그리고 이슈를 서로 연계하여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이미경 등, 2017). 인식론적 지식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 대상, 방법, 적용 방안, 전문가 의견 등의 지식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지식은 프레임워크에 관한 지식으로 점차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기능은 인지적 기능과 초인지적 기능(cognitive and meta-cognitive skills), 사회적 기능 및 정서적 기능 (social and emotional skills), 신체적 기능 및 실천적 기능(physical and practical skills)이 해당된다. 인지적 기능과 초인지적 기능은 언어 및 숫자 등을 인지적으로 추론하고, 획득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사고 전략이며, 언어적 기능 및 비언어적 기능, 고차원적 사고 기능, 효과적 실행기능 사용,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된다. 초인지적 기능은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능력이 해당된다. 사회적 기능 및 정서적 기능은 사고, 정서, 행동이 일관성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의미한다. 신체적 기능 및 실천적 기능은 도구를 사용하고, 작업하며,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 발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태도와 가치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등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미래사회에서 개인적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측면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다. 태도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할 수 있으며, 특성이나 기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하다(Schwartz & Bohner, 2001). 또한, 가치는 특정 신념, 행동 및 행위에 대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는 원리를 의미한다(Halstead & Taylor, 2000). 가치는 개인 및 사회 속에서 긍정할만하다는 것에 대한 핵심 개념(Rokeach, 1979)과 행위를 선택하고 사건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Schwartz & Bilsky, 1987).

3) 교육과정 개선의 핵심 - 교과 역량의 재개념화

체육과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변혁을 맞이하였다.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신체활동 가치를 제시하며 체육과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과 합리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체육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신체활동 가치에 체육과 교과 역량이라는 개념을 더하였다(윤기준, 2019). 결과적으로, 현행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안전을 포함하여 새롭게 제시된 신체활동 가치를 내면화하고 네 가지 체육과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체육수업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진

술한 바와 같이 OECD Education 2030에서 과제는 핵심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는데 요구되는 교육체계를 만드는데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의 향후 교육과정도 역량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달리 체육수업 현장에서는 신체활동 가치에 체육과 교과 역량이 더해진 구조를 이해하고, 역량에 기반하여 체육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유창완, 윤기준, 2019; 유창완, 윤기준, 전세명, 2017; 정현철, 2018). 김명수(2017)는 이와 같은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과 역량에 대한 개념 이해를 위한 교사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윤기준(2019)은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 교과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체육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이유 중 하나로 신체활동 가치와 교과 역량 간의 관계 설정이 제시되지 못함을 들고 있다. 즉,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도입 시기부터 신체활동 가치와 체육과 교과 역량에 대한 개념이 적합하게 구분되지 못하였고, 가치와 역량의 개념적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위계 설정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신체활동 가치 영역은 교과 역량의 관계는 신체활동 가치를 역량의 관점에서 풀어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적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오승현, 2019). 즉, 신체활동 가치와 관련하여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 요소에 가깝게 교과 역량을 개념화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박정준, 2017). 이러한 이유로 체육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이 신체활동 가치와 체육과 교과 역량 간 개념 및 구조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지영 등(2019)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의 역량 제시 방안을 신체활동 가치 - 교과 역량 - 역량(내용 요소)의 차별적 위계로 설정하여 개선하고 이에 따라 체육과 교과 역량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체육과 교과 역량의 재개념화와 관련하여 OECD Education 2030은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OECD Education 2030에 따르면 미래 사

회에서는 학생 행동주체로서 변혁적 역량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과정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변혁적 역량에는 지식, 기능, 그리고 태도 및 가치가 포함되며, 각 영역은 미래사회에서 변혁적 역량을 함양하는데 있어 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체육과 교과 역량 역시 지식, 기능, 그리고 태도 및 가치 영역을 축으로 하여 재 개념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특히, 변혁적 역량의 관점에서 태도 및 가치는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미경 등(2017)에 따르면, 교육 및 청소년 발달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등의 교육과정에서 실행 순서와 통합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과정 실행 순서는 ‘기능-지식-태도’에서 ‘태도-기능-지식’으로 전환이 제안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먼저 학습에 대한 태도를 마련하면, 다음으로 학습에 따른 기능의 발달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교육과정 실행에서 중요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교과 또는 단원에 대한 학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를 함양하여 학습하는 대상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이후 학습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능을 발달시킨다면, 학생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이미경 등, 2017).

태도와 가치가 역량의 구성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다른 근거로 이미경 등(2017)이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 맵핑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OECD Education 2030 연구의 일환으로 OECD의 요청을 받아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맵핑(Curriculum Content Mapping; CCM)을 진행하였다. 교육과정 내용 맵핑의 세부적인 목적은 교과에서 제공하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와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20가지 역량의 개념 연결 고리를 탐색하는데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과정 내용 맵핑의 결과는 역량 함양 교육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교육과정 내용 맵핑 연구는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OECD가 제시하고 있는 20가지 역량이 반영되는 정도를 네 단계로 분류하는 작업이었다. 여기서 역량 반영 정도는 <표 5>와 같이 1단계에서 4단계 까지로 제시되었다.

표 5. 교육과정 문서 내 역량 반영 정도 단계

단계	설명
1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교사들이 가르칠 가능성이 낮은 역량
2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교사들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는 역량
3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특정 학년의 중요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역량
4	교육과정 주요 목표 항에 명시되어 있는 역량

출처: 이미경 등(2017)

표 6.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 맵핑 결과

의사소통	협동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자기 관리	공감/배려	존중	인내	학생 주도성	차의적 사고	책임	갈등 해결	예상	실행/실천	반성	글로벌 역량	지속 발전 역량	기업가 정신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팅 사고
1	3	1	1	3	4	4	3	2	1	1	3	1	1	1	1	1	1	1	1

출처: 이미경 등(2017)

표 7.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 내 OECD 역량

단계	설명
1	예상, 지속 가능한 발전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팅 사고/코딩
2	학생 주도성, 갈등 해결, 글로벌 역량, 기업가 정신/진취성
3	의사소통, 인내, 실행/실천, 반성
4	협동,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자기 관리, 공감/배려, 존중, 책임

출처: 이미경 등(2017)

교육과정 내용 맵핑 결과 2015 개정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맵핑의 최종 결과는 <표 6>과 같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 반영 정도의 단계에 따른 OECD 역량은 <표 7>과 같이 구분되었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협동, 자기관리, 공감/배려 등 OECD Education 2030의 변혁적 역량의 태도 및 가치와 관련된 요인이 201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변혁적 역량의 세 가지 영역인 기능, 지식, 그리고 태도 및 가치는 체육과 교과 역량의 재개념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태도 및 가치는 교과 역량의 재개념화를 위한 핵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 체육과 교과 역량 관련 연구 현황

본 연구에서는 체육과 교과 역량 관련 연구 현황을 <표 8>과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 후 교과 역량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의미와 특징 분석에 따른 선언적 내용을 포함한 연구, 교과 역량 기반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교과 역량 개념화 연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과 역량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의미와 특징을 분석한 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교과 역량 기반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는 체육 수업 현장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정규 교과 시간 외 체육수업 프로그램에서 역량을 다루는 연구도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체육과 교과 역량 내용 체계 및 구조화 관련 연구도 주로 다루어진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다.

표 8. 체육과 교과 역량 관련 연구 동향

구분	제목	저자 (연도)	주요 내용
	교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과 교원의 역량	조난심, 최의창, 은지용 (2015)	- 교과교육에서 인성교육과 교원의 역량에 대해 논의 - 인성 역량을 교육과정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역 량중심의 의미와 초등체육의 지향	장용규, 이정택 (2016)	-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역량 중심의 의미를 체육과 가치와 관련하여 과거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서 내용과 연관하여 제시 - 가치, 신체활동 그리고 역량에 기반하여 미래 사회에서 초등학교 체육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
교육 과정 분석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징 과 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	김명수 (2017)	-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체육과 교사 교육의 방향을 예비 교사 교육과정 분석,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제안 - 초등체육교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 교육 과제 : 실천적 지식 습득, 교육과정 개발로서의 접근을 통한 교사 교육, 초등학교 예비교사교육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하여 교육
	중학교 체육교과서 에 구현된 교과역 량의 내용 및 교수 ·학습방법 분석	박웅 (2017)	- 중학교 체육교과서에 구현된 교과역량의 내용 및 교수방법을 분석
	체육 교과 역량 함양 교육에 관한 지도주체별 인식 탐색	박정준 (2017)	- 체육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 주체별 교과 역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탐색

표 8. 체육과 교과 역량 관련 연구 동향(계속)

구분	제목	저자 (연도)	주요 내용
	교과 역량 반영 체육 수업 실천의 난점과 과제 탐색	유창완, 윤기준, 전세명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역량 반영 체육수업의 실천 과정에서 교사가 겪게 되는 난점과 과제 탐색 - 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지도안 분석, 비참여 관찰, 면담 자료를 귀납적 분석 - 교과 역량 이해의 어려움, 기존의 것 활용, 평가의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도출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조사에 따른 역량 중심 교육과정 비교 연구	이근호 등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수행 - OECD가 제안하는 역량 및 역량 교육의 틀을 한국적 맥락에 맞춰 탐색 -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주요 참여국의 교육과정 현황을 파악하여 참여국 간 교육과정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교육과정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체육교과서 교과역량 내용 분석	김혜원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된 중학교 체육교과서의 구성 및 내용체계 탐색 - 성취 기준 및 기능에 근거하여 교과 역량 내용 분석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현장적용 사례 및 과제 연구	정현철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체육과 핵심역량을 위한 교육과정-계획-수업-평가-기록의 연계성을 추구할 것을 제안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OECD 역량 반영 분석: 교육과정 내용 맵핑을 중심으로	서지영 등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OECD 역량 반영 현황을 교육과정 내용 맵핑을 활용하여 분석 - 체육과 교육과정 역량 제시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체활동 가치-교과 역량 - 역량(내용 요소)의 차별적 개념과 위계설정 필요성 제안
	체육 교과의 역량 개념에 대한 접근과 이해: 전인교육과 신체 역량의 관계를 중심으로	오승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교과 역량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체육 교과의 본질과 고유 역량에 대해 논의 - 통합적 교육관에서의 기능, 지식, 태도의 교육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스피노자의 역량 개념을 통해 고찰하여 체육교과가 전인교육에서 차지했던 불분명한 위상을 명확하게 파악

표 8. 체육과 교과 역량 관련 연구 동향(계속)

구분	제목	저자 (연도)	주요 내용
교육 과정 분석	2015 개정 체육과 교육 과정 문서체제 개선 방 향 탐색	유창완, 윤기준 (2019)	-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체제의 개 선방향을 탐색 - '성취기준'을 제시할 때 교과 역량과의 관 련성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술되어야 함을 제안
	차기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 한 쟁점	윤기준 (2019)	-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2007, 2009, 2015) 문서를 분석 - 신체 활동 가치와 교과 역량 간의 관계 설 정의 문제를 제시 -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시 신체활 동 가치와 교과 역량 간의 관계 설정 제안
교과 역량 기반 수업 프로 그램 개발 및 적용	백워드 교육모형을 활 용한 협력적 문제해결 력 함양 양궁단원 체 육수업	이태구, 이한주 (2015)	- 양궁 단원 체육수업에서 백워드 교육모형을 활용한 협력적 문제해결력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고등학교 1학년 148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반구조화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귀납적 범주분석 실시
	2015 개정 체육과 교 육과정의 변화된 교과 역량요소에 대한 중학 생의 인식조사: 학교스 포츠클럽에 참여한 학 생들을 중심으로	권윤철 (2017)	-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역량요 소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조사 - 영역별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의 태도적 요 소를 추출하여 교과 역량별 측정변인으로 선정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
	핵심역량 뉴스포츠 프 로그램 적용을 통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 생의 체육수업 태도 및 만족도 변화	이광훈 (2017)	- 핵심역량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 생에게 적용하여, 집단 간 체육수업 태도 및 만족도 변화를 검증
	핵심역량 뉴스포츠 프 로그램 적용을 통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 생의 체육수업 태도 및 만족도 변화	이광훈, 최홍섭 (2017)	- 핵심역량을 뉴스포츠 프로그램에 적용한 체육수업을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체육수업 태도 및 만족도 변화를 탐색 - 핵심역량 뉴스포츠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 에서 체육수업 태도 및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밝힘.

표 8. 체육과 교과 역량 관련 연구 동향(계속)

구분	제목	저자 (연도)	주요 내용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융합체육수 업 사례	조기희 (2017)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핵심역량 별로 융합형 체육수업을 위한 사례를 제시
	신체 수련 역량 강화 를 위한 초등학교 생 존 수영교육 프로그램 의 적용 및 효과성 탐 색	남재식, 이영석 (2018)	-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 프로그램이 신체 수련 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는지 조사 - 초등학생 3학년 49명을 대상으로 실험연구 - 신체 수련 역량 강화를 측정하기 위해 신 체적 자기효능감 질문지를 활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 - 소감문, 참여관찰 자료를 활용하여 질적 분 석 진행
교과 역량 기반 수업 프로 그램 개발 및 적용	체육 교과 역량 함양 을 위한 초등학교 거 리도전 수업 사례연구	채진병 (2018)	-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 교 과 역량 함양을 위한 높이뛰기 수업 사례 연구 진행 -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과 서 내용을 분석하여 수업 계획을 수립 - 학생들의 소감문을 토대로 의미를 해석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초 등학교 맨발활동 탐색	권택환 (2019)	-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핵 심역량에 기반한 맨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효과 탐색 -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 및 창의적 사 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함 양된다는 결과 도출
	2015 개정 체육과 교 육과정에 따른 핵심역 량 함양을 위한 생태 주의에 입각한 신체활 동 프로그램 수업 사 례 연구	박지영, 김수연, 장경환 (2019)	- 초등학교 6학년 24명을 대상으로 2015 개 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른 핵심역량 함양 을 위한 생태주의에 입각한 신체활동 프로 그램 수업의 효과를 사례기록 분석,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 검증

표 8. 체육과 교과 역량 관련 연구 동향(계속)

구분	제목	저자 (연도)	주요 내용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시안에 따른 표현영역에서의 창의 역량 하위요인과 적용	신민혜, 조남기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영역에서 창의 역량에 대한 하위 요소 탐색 - 창의 역량 하위 요인으로 맥락이해, 융합적 사고, 진취성, 개방성, 자기주도성 도출
	역량기반 초·중등 무용 교육과정 내용체계 개발 사례	이윤경, 조미혜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무용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체계를 무용 역량에 기반하여 개발
체육과 교과 역량 내용 체계 및 구조화	역량중심의 체육과 표현활동 수업 실천하기: 교수 학습 방법으로서 역량 기능의 요소 및 적용방안 탐색	박혜연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중심의 체육과 표현활동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역량 기능의 요소 및 적용 방안을 탐색 -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헌 조사와 표현 활동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회의를 통해 얻은 자료를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탐색 - 역량기능별 세부요소를 탐색하여 역량 중심 표현활동 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도출
	역량중심 체육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표현 영역의 내용체계 및 역량 요소 분석	홍애령, 조미혜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중심 체육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표현 영역의 내용체계 및 역량 요소를 분석 - 수행역량, 창작역량, 감상역량, 인지역량, 인성역량의 5가지 상위 역량 요소와 3가지 하위 역량 요소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1>에서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을 탐색하기 위해 문헌 고찰과, 교육과정 전문가, 스포츠심리학 전문가, 현장교사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에 대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토대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절차에 맞게 실시하였다(승인번호 IRB No. 2012/002-011).

연구 I.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델파이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관련 연구, 교육 분야 역량 관련 연구, 스포츠심리학의 역량(competency) 관련 연구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을 구조화하기 위해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에 대한 구성 개념을 탐색하였다.

1. 연구참여자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 스포츠심리학 전문가, 현장교사, 일반 직장 인사업무 담당자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번	연령	직책	전공(과목)	소속	기타
1	41	교수	스포츠심리학	대학교	박사
2	37	교수	스포츠심리학	대학교	박사
3	41	교수	스포츠교육학	대학교	박사
4	39	교수	스포츠교육학	대학교	박사
5	45	연구원	스포츠교육학	교육과정평가원	박사
6	45	연구원	영어교육	교육과정평가원	박사
7	48	교사	체육	중학교	박사
8	47	교사	체육	중학교	석사
9	45	교사	체육	중학교	박사
10	44	교사	체육	중학교	석사
11	42	장학사	체육	교육지원청	
12	41	장학사	체육	교육지원청	
13	47	팀장	체육	U사	(前)인사팀
14	42	팀장	회계학	Z사	(現)인사팀

2. 연구절차

1) 1차 델파이 조사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구성 개념에 대한 탐색을 위해 1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증진할 수 있는 핵심역량 중심심리적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각 전문가 위원은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증진할 수 있는 심리적 역량 요소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근거 혹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을 정의하고, 영역별 구조모형(안)을 구안하였다.

2) 2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를 구안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각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 정의(안)와 영역별 구조모형(안)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고, 개념 정의 및 구조모형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각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을 수정하여 정의하였으며, 동시에 전문가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구조모형을 개선하였다.

3) 3차 델파이 조사

3차 델파이 조사 역시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구안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영역별 구조모형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구조모형을 완성하였다.

3. 자료분석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념 및 구조 모형에 대한 타당화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선택형 문항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의 타당화 절차 및 방법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개념 정의, 영역, 하위 요인)의 타당화는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심리학, 스포츠교육학 전문가, 교육과정 연구원, 체육교사, 기업 인사담당자 등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모형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타당화 과정은 임효신(2015)의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개발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전문가 검토에서는 연구자가 제작한 델파이 조사지에 따라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에 있어, 다음 사항 ① 각 영역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영역으로 타당한지와 각 영역별 개념의 적절성, ②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별 하위 요인의 경우 각 영역별 하위 요인으로 타당한지와 각 하위 요인의 개념 적절성 등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 의견을 선행 연구의 문헌 자료를 근거로 반영하였으며, 연구자의 독단과 편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분석을 예방하기 위해 검토 의견에 대해 각 델파이 조사 단계별로 스포츠심리학자 및 교육과정 전문가 총 3인의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김영천, 2012).

연구Ⅱ.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본 연구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나타난 결과와 더불어 2차 및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를 개발하였다.

1. 연구대상

먼저 예비 문항의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문항 이해도를 점검하였으며, 다음으로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연구에서 필요한 적합한 수의 표본은 연구 목적이 무엇인지, 통계 분석 방법은 어떠한 것을 활용하였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데(Olejnik & Algina,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요인 또는 처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므로, 척도의 요인분석을 위해 약 400명 정도의 표본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맞춰(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 424명을 표집하였다. 하지만, 설문 응답의 성실도 및 완료 여부를 확인한 결과 11건의 응답 누락 및 불성실 응답이 발견되어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413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성개념타당도(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공인타당도 교차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0>와 같이 나타났다.

표 10.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413)

분류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여학생	178	43.1
	남학생	235	56.9
학년	1학년	121	29.3
	2학년	109	26.4
	3학년	183	44.3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립된 구성개념을 토대로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위원이 제안한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초기 문항을 제작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초기 문항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전문가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포츠심리학자 1인과 체육교사 1인, 그리고 연구자를 포함한 3인의 회의를 통해 질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설문 참여자간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하고 자발적 참여 및 자료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뒤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인 중학생인 관계로 연구 참여자의 동의와 함께 보호자에게도 연구에 대한 설명문 제시 및 자녀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코딩 작업 후 SPSS 18.0 프로그램에서 문항 적합성 검사를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에 대한 개념 구조가 탐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구성개념타당도(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공인타당도,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측정도구 개발 절차 중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 구조를 확정지었으므로, 요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인 탐색적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강상욱, 2019).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8.0와 AMO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1) 문항에 대한 문항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문항반응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α)를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작된 척도가 확인적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적합도 검증과 Bar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 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에 적합한 요인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AMOS 21.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가 검증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 α)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를 활용하였다.
- 5)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 I.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

본 연구에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에 대한 탐색은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인을 구조화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은 본 연구에서 척도 개발의 개념적 기반이 되었다.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구조의 구안 및 타당화를 위해 1차적으로 연구자가 선행연구(교육부, 2015; 이미경 등, 2017, 임효신, 2015; OECD, 2003, 2017) 고찰을 통해 체육수업의 심리적 역량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을 구안화하였으며,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모형 구안 결과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하위요소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역량 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교육 관련 역량 및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육과 교과역량을 종합·분석하여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적 역량 영역(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 및 하위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증진할 수 있는 역량 중 심리적 역량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가 위원에게 대한민국에서 예견되는 미래 사회의 특징(이근호 등, 2012), 교육을 통한 미래의 역량의 개념적 기본구조를 안내하여 역량 설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11>, <그림 2> 참조).

표 11. 대한민국에서 예견되는 미래 사회의 특징

과학기술의 진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심화, 다원주의 강화, 지식정보 기반 사회의 도래, 네트워크 사회, 친환경 사회, 평생학습 사회

출처 : 김동영 등(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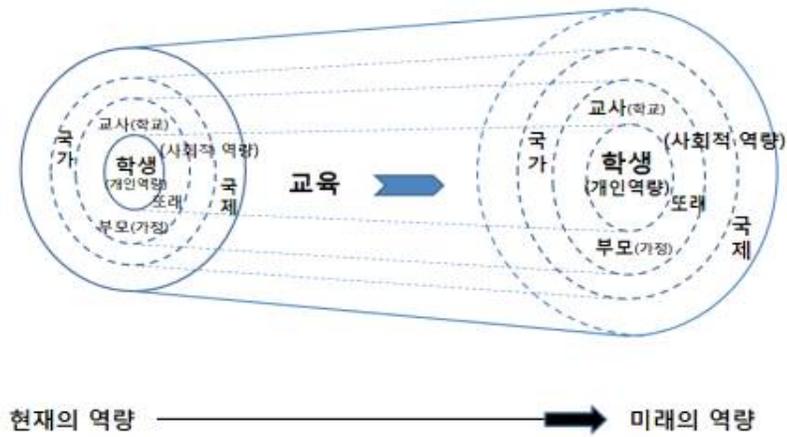


그림 2. 역량의 개념적 기본 구조 (김창환 등, 2013)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총 57개의 심리적 역량 요인이 제안되었으며, 그 중 기능적 역량과 관련된 3개 요인을 제외하고, 54개 영역의 역량 요인에 대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핵심역량의 요소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개발된 역량 영역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및 체육과 역량 내용을 반영하여, 중학교 체육 수업 심리 역량 영역(안)을 도출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안)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안된 역량	영역 도출	영역 도출 근거
자신감, 자기효능감, 자기인식, 자존감		
자기 관리, 실천의지, 자아고갈 극복, 신체관리, 건강 증진, 적극적 생활, 자율성, 목표설정, 에너지 관리	⇒ 개인 성장 역량	
끈기, 성취동기, 성실, 인내, 적극성, 도전, 용기, 자기극복, 회복탄력성		
상황대처, 전략 계획 및 실행 능력, 문제해결, 시스템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력		교육부(2015) 김창환 등(2013) 이근호 등(2013) 이미경 등(20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2007) OECD(2003, 2017)
긍정적 관계 형성, 관용, 공감, 존중,		
의사결정, 갈등 해결, 개방적 수용, 협력적 소통 능력, 협동	⇒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스포츠 예절, 규칙 준수 능력		
스포츠 시민성, 책임감, 팀워크, 페어플레이, 역할 수용, 조심성, 심미적 감상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	

도출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안)에는 ① 개인 성장 역량, ②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이 포함되었다. 개인 성장 역량의 하위 영역으로는 자기 관리, 긍정적 자기인식, 실천의지/진취성, 종합적 사고가 있었으며,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에는 존중/배려, 협력적 소통, 규칙 준수가 포함되었다(<표 13> 참조.).

표 13.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영역(안)	하위요인(안)
개인 성장 역량	자기 관리
	긍정적 자기인식
	실천의지/진취성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종합적 사고
	존중/배려
	협력적 소통
	규칙 준수

다음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인 개인 성장 역량과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의 개념(안)을 <표 14>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14.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별 개념 정의(안)

영역(안)	영역별 개념 정의(안)
개인 성장 역량	개인적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관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미래 사회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사회적 측면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실천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다음으로 1차 델파이 조사 자료 분석 및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모형의 각 영역에 포함된 하위 요인별 개념(안)을 정의하였다. 즉, 개인 성장 역량에 포함된 자기관리, 긍정적 자기인식, 실천의지/진취성, 종합적 사고의 4개 하위 요인에 대한 개념(안)과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하위 요인인 존중/배려, 협력적 소통, 규칙 준수의 3개 요인의 개념(안)을 <표 15>와 같이 정의하였다.

표 15.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에 포함된 하위 요인별 개념(안)

영역(안)	하위요인(안)	하위요인별 개념 정의(안)
개인 성장 역량	자기 관리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와 의지를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필요한 전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긍정적 자기인식	다양한 경험의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식하며, 삶을 의미있게 관찰하여 통찰하는 역량
	실천의지 /진취성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도전하는 역량
	종합적 사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통섭하여 전략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존중/배려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재 자체에 가치와 관심을 두고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협력적 소통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관계를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여 최선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량
	규칙 준수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예절, 규칙, 법규 등을 주체적으로 준수하는 역량

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모형 타당화 결과

1차 델파이 조사와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구안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에 대한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을 대상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의 영역 및 하위 요인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에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의 구조, 영역 및 하위 요인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선택형 문항 및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1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명을 제외한 13명이 응답하여, 92.9%의 회수율을 보였다.

또한,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위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개념 모형은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 역시 2차 델파이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찬가지로 14명의 전문가 위원 중 13명이 응답하여, 92.9%의 회수율을 보였다.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타당화 결과(1차)

가.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의 타당성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택형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표 16>와 같다. 개인 성장 역량과 하위 요인의 구조 설정에 대해 12명이 전문가 위원이 타당하다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과 하위 요인 구조 설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위원 13명 전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16.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에 대한 타당도(의견)

(n = 13명)

구분	응답빈도 및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	타당하지 않음	전혀 타당하지 않음	
개인 성장 역량과 하위 요인 구조 설정	6	6	1	0	0	4.38 (.65)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과 하위 요인 구조 설정	9	4	0	0	0	4.69 (.48)

다음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의 개선을 위한 검토 의견은 <표 17>과 같다. 주요 의견으로는 하위 요인 개념은 요인별 단일한 개념으로 선정, 타인 및 공동체와 관련된 영역 및 하위 요인 구조 재검토 등이 있었다.

표 17.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에 대한 의견

구분	검토 의견
개인 성장 역량과 하위 요인 구조 설정	긍정적 자기인식-자기관리-실천의지/진취성-종합적 사고 순으로 순서 변경 개인 성장 역량과 동일하게 1개 하위 요인을 추가하여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과 하위 요인 구조 설정	공동체 부분에 대한 역량의 비중 강화 개인-대인(가시적)-공동체(비가시적)로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 3개의 하위 요인 구조 설정 참여, 공동체 의식, 희생 등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모색

나.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에 대한 타당성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의 타당성을 묻는 선택형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표 18>과 같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의 타당성은 매우 타당함을 5점으로 한 리커르트 척도에서 4.31~4.85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한편 종합적 사고의 경우 보통 및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3건 있었다.

표 18.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의 타당성

구분	응답빈도(13) 및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	타당하지 않음	전혀 타당하지 않음	
개인 성장 역량	6	5	2	0	0	4.31 (.75)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5	8	0	0	0	4.38 (.51)
자기 관리	7	4	2	0	0	4.38 (.65)
긍정적 자기인식	5	7	1	0	0	4.38 (.77)
실천의지/진취성	7	5	1	0	0	4.31 (.63)
종합적 사고	5	5	2	1	0	4.46 (.66)
존중/배려	8	5	0	0	0	4.62 (.51)
협력적 소통	9	4	0	0	0	4.69 (.48)
규칙 준수	11	2	0	0	0	4.85 (.38)

다음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의견은 <표 19>와 같다.

표 19.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에 대한 의견

구분	검토 의견
개인 성장 역량	<p>보다 넓은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인’ 보다는 ‘자기’ 또는 ‘자아’ 등의 단어로 대체</p> <p>‘개인적 측면에서’ -> ‘자신의’로 수정</p> <p>‘관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 ‘자기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며’로 수정</p>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p>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을 개인에 대비되는 역량으로 간결한 용어로 규정</p> <p>관계 형성이 공동체 지속에 포함되는 형태 제안, 사회적 역량 제안</p> <p>‘사회적 측면에서’를 삭제</p> <p>‘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로 수정</p>
자기관리	<p>‘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와 의지를 바탕으로’를 삭제</p> <p>‘자율적으로’ -> ‘스스로’로 수정</p> <p>‘필요한 전략’ 삭제(지나치게 한정적임)</p> <p>‘자기관리’ -> ‘자기 관리’로 수정</p>
긍정적 자기인식	<p>‘다양한 경험의 과정에서’를 삭제</p> <p>‘인식하며’ -> ‘적극적으로 발견하며’로 수정</p> <p>인식이라는 의미에서 삶을 통찰한다기 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을 준비하는 태도/마음가짐이라는 의미가 적절함.</p>
실천의지 /진취성	<p>용어(실천의지/진취성)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움. 정의에 따르면, 진취적인 면이 드러나 보임.</p> <p>‘말은 바 역할’ -> ‘목표’로 수정</p>
종합적 사고	<p>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라기 보다는 문제해결력이 타당함.</p> <p>‘통섭’을 삭제(부적절한 용어 사용)</p> <p>체육이라는 맥락은 전략적인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는 상황에서 인지적인 사고력이 필요함.</p>

표 19.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에 대한 의견
(계속)

구분	검토 의견
존중/배려	용어(존중/배려)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움. 정의에 따르면 존중에 가까움.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개념에서 공동체내 공존의 의미와 가치가 부각됨.
협력적 소통	타인에 대한 공감의 의미 반영 협력적 소통이 반드시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적인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것은 아님
규칙 준수	규칙 준수라는 개념에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까지 논하는 것은 비약적임. 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기 성장 역량과 하위 요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회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하나의 하위 요인으로 제안할 수 있음.

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수정 결과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구조 모형을 <표 20>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의견 반영 항목을 번호로 제시하였다.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안)에는 자기 성장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이 포함되었다. 자기 성장 역량의 하위 영역으로는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관리, 진취성, 전략적 문제해결력이 있었으며, 공동체 참여 역량에는 존중, 협력적 소통, 규칙 준수,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포함되었다.

표 20.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구조 모형

영역	하위 요인
자기 성장 역량	공정적 자기인식
	자기 관리
	진취성
	전략적 문제해결력
공동체 참여 역량	존중
	협력적 소통
	규칙 준수
	공동체 의식

또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모형의 2개 영역의 개념을 <표 21>과 같이 수정하여 정의하였다.

표 21.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별 개념 정의

영역	영역별 개념 정의
자기 성장 역량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미래 사회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공동체의 구성원을 존중하고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실천하고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다음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모형 2개 영역의 하위 요인 개념을 <표 22>와 같이 수정하여 정의하였다.

표 22.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별 하위 요인 개념 정의

영역	하위 요인	하위요인별 개념 정의
자기 성장 역량	긍정적 자기인식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긍정적으로 실천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
	자기 관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진취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도전하는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전략적 문제해결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전략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존중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을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협력적 소통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량
	규칙 준수	공동체의 규칙, 규범 등을 이해하고 부여받은 권리와 책임을 주체적으로 준수하여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역량
	공동체 의식	공동체 구성원과의 공유된 믿음으로 연결된 정서, 가치관, 윤리의식 등을 포함한 사회결속 역량

3)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타당화 결과(2차)

가.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의 타당성

2차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에는 전문가 위원 14명 중 1명을 제외한 13명이 응답하였다. 먼저, 선택형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표 23>과 같다.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응답 점수의 평균은 1차 조사와 비교하여 자기 성장 역량에서 일부분 상승하였으며 (4.38 -> 4.54), 공동체 참여 역량과 하위 요인 구조 설정에서는 동일한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자기 성장 역량 영역과 하위 요인 구조 설정과 관련에 응답에 참여한 전문가 위원 전원이 ‘타당하다’ 이상으로 답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보통’으로 1명 응답).

표 23.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타당성 응답

구분	응답빈도(13) 및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	타당하지 않음	전혀 타당하지 않음	
자기 성장 역량과 하위 요인 구조 설정	7	6	0	0	0	4.54 (.52)
공동체 참여 역량과 하위 요인 구조 설정	9	4	0	0	0	4.69 (.48)

다음으로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술형 문항 응답 결과는 <표 24>와 같다.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자기 성장 역량과 하위 요인 구조 설정에 관해서는 수정된 모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공동체 참여 역량과 관련해서는 하위 요인의 제시 순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24.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에 대한 의견

구분	검토 의견
자기 성장 역량과 하위 요인 구조 설정	유지
공동체 참여 역량과 하위 요인 구조 설정	존중-규칙 준수-협력적 소통-공동체 의식 순으로 하위 요인 구조 제시

나.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에 대한 타당성

2차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의 개념의 타당성을 묻는 선택형 문항에 대한 3차 델파이 조사 의견은 <표 25>와 같다.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의 응답 평균 점수는 4.54~4.77로 나타나, 당초 수정되기 전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에 대한 응답 점수인 4.31~4.85보다 높았다. 하지만, 공동체 참여 역량의 하위 요인으로서 규칙 준수에 대한 타당도 점수는 4.85에서 4.77로 다소 낮아졌다. 한편 종합적 사고의 경우 보통 및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3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전략적 문제해결력을 추가하였다. 전략적 문제해결력은 4.62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다.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위원 전원에게 '타당하다' 이상으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5.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타당성 응답

구분	응답빈도(13) 및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	타당하지 않음	전혀 타당하지 않음	
자기 성장 역량	9	4	0	0	0	4.69 (.48)
공동체 참여 역량	8	5	0	0	0	4.62 (.51)
긍정적 자기인식	7	6	0	0	0	4.54 (.52)
자기 관리	8	5	0	0	0	4.62 (.51)
진취성	7	6	0	0	0	4.54 (.52)
전략적 문제해결력	8	5	0	0	0	4.62 (.51)
존중	9	4	0	0	0	4.69 (.48)
협력적 소통	8	5	0	0	0	4.62 (.51)
규칙 준수	9	4	0	0	0	4.69 (.48)
공동체 의식	10	3	0	0	0	4.77 (.44)

다음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의 타당성을 묻는 서술형 문항 응답 결과는 <표 26>과 같다. 전반적으로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일부 요인에서 용어 및 문장 표현의 수준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공동체 참여 역량의 경우 대인 관계와 공동체 수준의 관계를 통합하여 표현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개인 성장 역량과 공동체 참여 역량 개념 정의의 진술 방식을 통일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표 26. 수정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에 대한 의견

구분	검토 의견
개인 성장 역량	미래 사회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설명이 축소 제안
공동체 참여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의 개념적 정의를 자기 성장 역량과 대칭적인 형태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원래 개념 모형에서 타인 및 공동체 부분을 통합하였으므로, 타인에 대한 부분과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함께 제시될 것을 제안
긍정적 자기인식	'긍정적 자기인식' -> '자기인식'으로 수정
자기관리	능동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간다는 내용 추가 제안
진취성	유지
전략적 문제해결력	유지
존중	유지
규칙 준수	유지
협력적 소통	'이해하고 공감하며' -> '이해하고'로 수정 '의견과 조화시킬 수 있는' -> '의견과 조화시킴으로써'
공동체 의식	유지

다. 최종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1~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 구조, 영역 및 하위 요소 개념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도출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의 최종 모형은 <표 27>과 같다.

표 27. 최종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학교 체육수업을 통해 길러야 할 인지, 태도,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능력	
영역	개념적 정의	
자기 성장 역량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하위 요인	개념적 정의
	긍정적 자기인식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긍정적으로 실천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
	자기 관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진취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도전하는 역량
전략적 문제해결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역량	
	하위 요인	개념적 정의
	존중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을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협력적 소통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조화시킴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
	규칙 준수	공동체의 규칙, 규범 등을 이해하고 부여받은 권리와 책임을 주체적으로 준수하여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역량
공동체 의식	공동체 구성원과의 공유된 믿음으로 연결된 정서, 가치관, 윤리의식 등을 포함한 사회결속 역량	

연구Ⅱ.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예비문항 개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예비문항 개발은 델파이 조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먼저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구안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의 검토와 함께, 전문가 위원에게 각 영역별 하위 요인에 대한 문항 개발을 요청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하위 요인별 문항은 전문가 위원의 제안에 따라 일상 생활이 아닌 체육수업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였다. 국어 교사, 체육교사 및 스포츠심리학 전공자 3인의 검토과정을 통해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명료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예비 문항은 자기 성장 역량 영역에서 긍정적 자기인식 9문항, 자기 관리 12문항, 진취성 11문항, 전략적 문제해결력 12문항을 개발하였으며, 공동체 참여 역량 영역에서 존중 12문항, 협력적 소통 11문항, 규칙준수 9문항, 공동체 의식 10문항 총 8개 요인 86개 예비문항이 개발되었다.

2.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개발된 86개의 예비문항에 대해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위원에게 예비문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척도 하위요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문항(13, 47, 67), 중복 문항(6, 23, 30, 49, 57), 특정 종목이나 활동을 제시한 문항(19, 20, 70, 75)을 제외하였다. 동시에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요인에 대한 척도로서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한 순위를 6순위까지 선정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각 전문가 요원이 선정할 순위를 1순위에서 6순위까지 각각 6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여, 각 요인별로 최종 6문항을 선정하였다.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예비문항과 3차 델파이 조사의 전문가 위원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문항은 <표 28>과 같다.

표 28.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예비문항

문항	요인
1. 현재보다 미래에 더 향상된 운동 실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 자기인식
2.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실력이 향상되리라 생각한다.	
3. 나는 체육활동을 위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어떤 체육 수업 과제가 주어져도 잘 해낼 수 있다.	
5. 나는 운동 능력이 우수하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6. 평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7. 체육수업 환경이 바뀌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다.	
8. 체육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은 내 미래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9. 자신이 세운 운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 과제 활동시 주변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는 편이다.	자기 관리
11.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우선 순위를 정하는 편이다.	
12. 체육 수업에서 배운 기능을 스스로 연습한다.	
13. 실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14.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15.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16.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17. 체육 수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한다.	
18. 나는 꾸준하게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19. 왕복-오래달리기를 하기 전날에는 되도록 무리하지 않는다.	
20. 체육수업 복장을 잘 갖추고 수업에 참여한다.	
21. 건강 관리를 위해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편이다.	

표 28.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예비문항(계속)

문항	요인
22.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습에 참여한다.	
23. 잘 하지 못하는 종목에 대한 수업이라도 최선을 다한다.	
24. 스스로 정한 목표는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편이다.	
25. 과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26. 자신이 목표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	
27. 도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진취성
28.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9.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다.	
30. 어려운 동작을 연습하더라도 용기있게 참여한다.	
31. 복잡한 운동기술이라도 끈기있게 도전한다.	
32. 기량이 우수한 팀이나 친구와의 대결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33. 자신 또는 친구의 기술 동작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34. 패배나 실패의 원인을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	
35. 경기에서 상대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36.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 강도, 시간,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다.	
37.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38. 과제가 주어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전략적 문제 해결력
39. 경기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침착하게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본다.	
40. 어려운 동작도 하나하나 동작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연습한다.	
41. 친구의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점검표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42.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다.	
43. 체육 수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44. 수업 종료 후 체육시간에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표 28.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예비문항(계속)

문항	요인
45. 경기 중 마찰이 있었던 친구의 입장에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한다.	
46. 자신보다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도와주면 기분이 좋다.	
47. 친하지 않은 친구와 같은 모듬이 되면, 기분이 좋지 않다.	
48. 승리를 위해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49.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라도 멋진 기술을 보여주면 칭찬해준다.	
50. 친구가 부상을 당하더라도 경기가 중단되지 않으면 계속 경기한다.	
51. 수업 경기 예절에 대해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존중
52. 상대 선수라도 뛰어난 기술을 펼치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53. 경기에 지더라도 진심으로 상대를 축하해준다.	
54. 동작이 어색한 친구를 보면 웃음을 잘 참지 못한다.	
55. 나는 실력이 부족한 친구를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준다.	
56. 상대방이 부상을 입으면 반칙 여부에 상관없이 사과한다.	
57. 모듬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하다.	
58. 승리를 위해 경기 중 친구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	
59. 모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협력하여 대책을 찾는다.	
60. 경기 중 친구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61. 모듬 과제를 위해 친구들과 의논하는 것을 중요하다.	
62. 기술 향상을 위한 나만의 방법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협력적 소통
63. 친구의 작전 계획이 나와 다르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64. 운동 기술 향상을 위한 친구의 조언을 주의깊게 듣는 편이다.	
65. 모듬 활동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소통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66. 나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67. 팀 활동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표 28.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예비문항(계속)

문항	요인
68.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69. 심판이 오심하더라도 바로 인정하고 다음 경기에 집중한다.	
70. 경기 중 자신 또는 우리팀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정한 적이 있다.	
71. 나에게 불리한 경기규칙이라도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72. 승패에 관계 없이 심판이 보지 않더라도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규칙 준수
73. 심판이 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더라도 잘못된 판정이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74. 체육수업 규칙을 만들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75. 내가 심판이라면, 친한 친구가 있는 팀에 유리한 판정을 할 수 있다.	
76. 규칙을 어기고 이기는 것보다 규칙을 지키고 지는 것이 더 가치 있다.	
77. 일단 모듬이 구성되면 내가 속한 모듬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78. 팀의 승리와 패배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중요하다.	
79. 팀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팀이 승리하면 진심으로 기뻐할 것 같다.	
80. 모듬을 구성할 때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은 중요하다.	
81. 내가 속한 모듬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82. 모듬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공동체 의식
83.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모듬이 승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84. 작은 역할이라도 모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돕고 협력한다.	
85. 모듬에서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86. 경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기 상황에 집중하고 친구들을 응원한다.	

3. 문항 적합성 및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 점검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48문항을 최종 예비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30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의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해 “아래 문항은 답할 수 없을만큼 이해하기 어려운가요?”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1=예’, ‘2=아니오’로 응답하였다. 예비문항 48문항 중 47문항 각각에 대해 학생들 전원이 답할 수 없을만큼 이해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즉, 예비문항은 전체적으로 학생 이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명 이상의 학생들이 어렵다고 응답한 문항은 규칙 준수 요인에서 1문항이 있었으며, 해당 문항은 본 예비문항 중 유일하게 부정형 문장으로 제작되었다.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승리를 위해 때로는 심판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규칙을 어길 수도 있다.’라는 부정형 문장을 긍정형으로 수정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승패에 관계 없이 심판이 보지 않더라도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수정된 예비문항에 대하여, 조사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 적합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간 상관관계, 문항별 반응분포 <표 29>와 같다. 각 문항별 평균범위는 3.33~4.37, 표준편차 범위는 .729~1.144, 왜도 범위는 -1.038~-.135, 첨도 범위는 -.735~1.712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았으며, 첨도의 절대값 또한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성을 띄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배병렬, 2014), 이를 통해 기술통계치, 문항분포는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요인분석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표본 적절성 측정치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는 .942로 나타났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chi^2=9616.457(df=780, p<.001)$ 로 나타났다. KMO 값은 1에 매우 가까우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상관관계를 0으로 놓은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대립가설을 채택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표본은 단위 행렬이 아님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 자료가 요인분석에 활용하기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표 29. 각 문항별 기술통계 및 적합성 (n=413)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상관 계수	문항 제거시 신뢰도	문항별 반응분포(단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4.16	.796	-.754	.482	.561	.959	2	8	67	182	154
2	3.60	1.004	-.408	-.356	.592	.959	10	48	119	156	80
3	3.49	1.144	-.319	-.709	.596	.959	21	61	121	116	94
4	3.86	.891	-.326	-.517	.632	.959	2	21	121	157	112
5	4.02	.820	-.665	.188	.651	.959	3	15	85	176	134
6	4.16	.820	-.817	.602	.607	.959	3	7	71	170	162
7	3.43	1.056	-.135	-.735	.558	.959	11	71	135	121	75
8	3.66	.979	-.404	-.249	.550	.959	9	37	128	152	87
9	2.87	1.106	.137	-.680	.522	.959	44	117	133	86	43
10	3.35	1.039	-.434	-.366	.392	.960	22	63	121	161	46
11	3.51	1.058	-.176	-.576	.565	.959	18	71	140	124	60
12	4.31	1.004	-.384	-.292	.494	.959	13	50	129	154	67
13	3.78	.905	-.394	-.227	.625	.959	4	27	120	168	94
14	3.84	.832	-.277	-.405	.620	.959	1	19	118	182	93
15	3.78	.946	-.453	-.356	.670	.959	4	36	107	165	101
16	3.77	.949	-.502	-.241	.673	.959	5	37	103	171	97
17	3.82	.890	-.400	-.252	.684	.959	3	25	115	172	98
18	3.61	1.031	-.351	-.616	.651	.959	8	57	112	147	89
19	3.48	1.028	-.248	-.622	.608	.959	10	65	125	142	71
20	3.56	1.004	-.329	-.534	.634	.959	8	57	118	154	76
21	3.53	.979	-.303	-.449	.677	.959	8	55	127	156	67
22	3.53	.949	-.364	-.290	.674	.959	8	52	126	169	58
23	3.60	.881	-.379	-.078	.687	.959	5	39	130	183	56
24	3.88	.854	-.488	.037	.627	.959	3	19	104	187	100

표 29. 각 문항별 기술통계 및 적합성(계속)

(n=413)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상관 계수	문항 제거시 신뢰도	문항별 반응분포(단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4.14	.804	-.757	.489	.461	.959	2	10	67	185	149
26	4.26	.706	-.622	-.031	.548	.959	0	5	48	195	165
27	4.08	.795	-.804	1.137	.559	.959	4	7	71	203	128
28	3.98	.895	-.749	.513	.539	.959	6	15	89	176	127
29	4.10	.910	-.820	.148	.457	.960	3	20	74	152	164
30	4.04	.834	-.598	.185	.452	.960	3	9	91	177	133
31	3.88	.837	-.313	-.417	.656	.959	1	18	113	180	101
32	4.11	.784	-.614	.291	.578	.959	2	6	77	189	139
33	3.78	.878	-.329	-.264	.615	.959	3	24	125	171	90
34	4.08	.782	-.578	.101	.606	.959	1	10	74	196	132
35	4.01	.836	-.578	.043	.566	.959	2	14	87	183	127
36	3.89	.931	-.666	.317	.514	.959	8	17	105	166	117
37	3.90	.955	-.778	.415	.539	.959	9	22	90	171	121
38	4.06	.907	-.822	.331	.447	.960	4	20	74	165	150
39	3.96	.994	-.726	-.002	.470	.960	8	22	98	135	150
40	4.37	.683	-.986	1.712	.496	.959	2	0	36	181	194
41	4.14	.899	-.879	.472	.466	.959	5	10	82	142	174
42	4.27	.729	-.803	.644	.464	.959	1	5	48	187	172
43	4.17	.838	-1.083	1.525	.396	.960	5	10	55	181	162
44	4.10	.822	-.853	.976	.530	.959	4	9	69	189	142
45	4.18	.813	-.934	1.150	.577	.959	4	6	64	178	161
46	4.25	.749	-.826	.816	.603	.959	2	3	56	181	171
47	4.10	.774	-.529	-.045	.584	.959	1	7	77	191	137
48	4.15	.817	-.783	.303	.611	.959	1	15	61	182	154

전체 Cronbach's $\alpha = .960$

* $p < .05$, ** $p < .01$

4. 확인적 요인분석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 분할법(sample-split approach)으로 전체 자료의 절반을(n=206) 무작위로 추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립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은 각각 자기 성장역량 4개 요인, 공동체 참여 역량 4개 요인의 모형을 채택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분석을 위한 적합도 지수 기준은 <표 30>과 같이 설정하였다(배병렬, 2014).

표 30. 모형분석의 적합도 기준

지수	적합도 기준
χ^2	$p>.05$
χ^2/df	3 이하
CFI	.90 이상
TLI	.90 이상
RMSEA	.08 이하

1) 자기 성장 역량

4요인 24개 문항에 대해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6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최초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1>과 같이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합지수인 χ^2 값은 616.572($df=246$,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RMSEA는 .086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FI(.862), TLI(.877) 값 모두 .90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자기 관리 2문항 표준화 회귀계수가 .60 미만으로 나타나 내용 검토 후 삭제하였다.

표 31.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206)

χ^2	df	χ^2/df	p	CFI	TLI	RMSEA
617.572	246	2.506	<.001	.862	.877	.086

이후 22문항에 대해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32>과 같이 $\chi^2=504.987(df=203, p<.001)$ 로 영가설을 기각하였으며, 또한, 모형 적합도 역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표준화 회귀계수가 .60 미만 또는 오차 분산간 상호 관련성이 유의한 문항에 대해 내용 검토 후 긍정적 자기인식 2문항, 진취성 1문항, 전략적 문제해결력 1문항 총 4개 문항을 다시 삭제하였다.

표 32.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206)

χ^2	df	χ^2/df	p	CFI	TLI	RMSEA
504.987	203	2.488	<.001	.894	.879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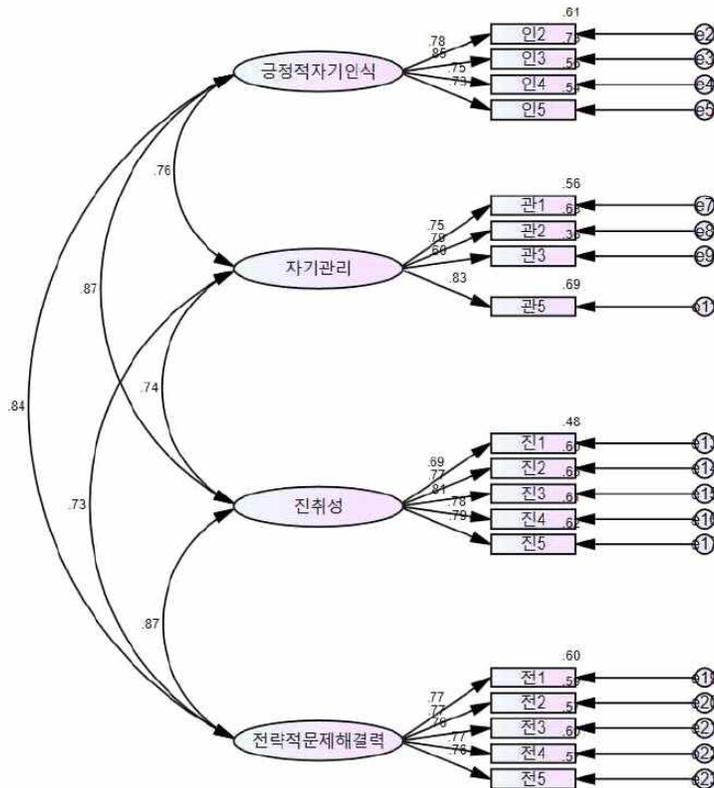
이에 18문항에 대해 3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대적합 지수인 χ^2 값은 200.442($df=155, p<.001$)로 유의하여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χ^2/df 의 값을 확인할 결과 1.554로 나타나 기준치인 3 이하인 것으로 계산되어 적합하였고, 모형 적합도 지수인 CFI(.968), TLI(.962), RMSEA(.052)는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3>. 표준화 회귀계수 또한 모든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중 자기 성장 역량 영역은 긍정적 자기인식 4문항, 자기관리

4문항, 진취성 5문항, 전략적 문제해결력 5문항 총 4개 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채택하였다<그림 3>.

표 33. 3차(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206)

χ^2	df	χ^2/df	p	CFI	TLI	RMSEA
200.442	455	1.787	<.001	.913	.905	.062



주. 인-긍정적 자기인식, 관-자기관리, 진-진취성, 전-전략적 문제해결력
 <그림 3> 자기 성장 역량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공동체 참여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역시 자기 성장 역량과 마찬가지로 4요인 24개 문항에 대해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6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34>와 같이 절대적합지수인 χ^2 값은 676.442($df = 246$, $p < .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RMSEA(.092), CFI(.838), TLI(.818) 모두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규칙 준수 1문항, 공동체 의식 1문항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60 미만으로 나타나 내용 검토 후 삭제한 후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4.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206)

χ^2	df	χ^2/df	p	CFI	TLI	RMSEA
676.442	246	2.750	<.001	.838	.818	.092

이후 22문항에 대해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35>와 같이 $\chi^2=503.048(df=202, p < .001)$ 로 영가설을 기각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또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표준화 회귀계수가 .60 미만 또는 오차 분산간 상호 관련성이 유의한 문항에 대해 내용 검토 후 존중 2문항, 협력적 소통 2문항, 규칙 준수 1문항, 공동체 의식 2문항 총 7개 문항을 추가로 삭제하고 수정지수(1개)를 사용하여 3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5.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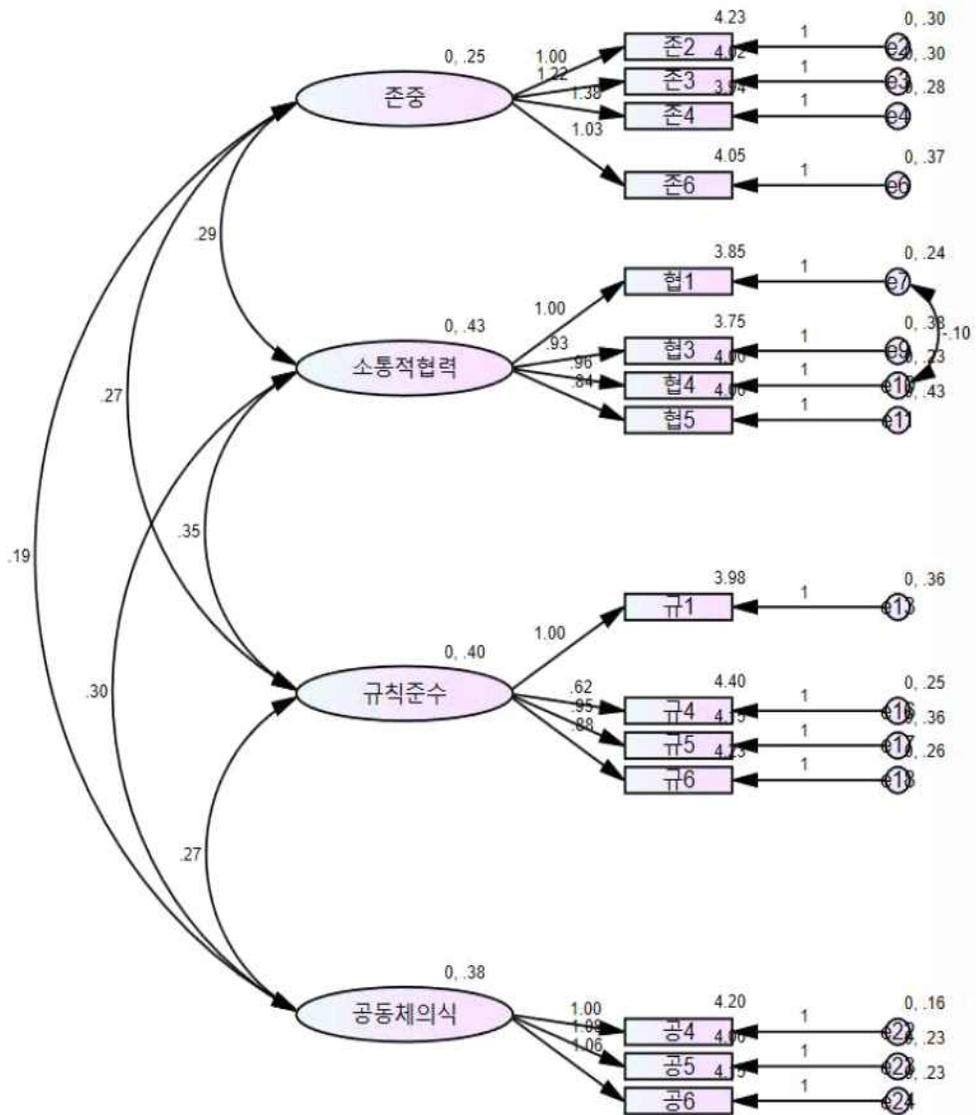
χ^2	<i>df</i>	χ^2/df	<i>p</i>	CFI	TLI	RMSEA
503.048	202	2.490	<.001	.875	.857	.085

이에 공동체 참여 역량 15문항에 대해 3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χ^2 값은 117.565(*df*=83, p <.001)로 유의하여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χ^2/df 의 값을 확인할 결과 1.416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3 이하인 것으로 계산되어 적합하였고, 모형 적합도 지수인 CFI(.977), TLI(.971), RMSEA(.045) 역시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6>. 표준화 회귀계수 또한 모든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중 공동체 참여 역량 영역은 존중 4문항, 협력적 소통 4문항, 규칙 준수 4문항, 공동체 의식 3문항 총 4개 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채택하였다 <그림 4>.

표 36. 3차(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206)

χ^2	<i>df</i>	χ^2/df	<i>p</i>	CFI	TLI	RMSEA
117.565	83	1.416	<.001	.977	.971	.045



주. 존-존중, 협-협력적 소통, 규-규칙 준수, 공-공동체 의식
 <그림 4> 공동체 참여 역량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는 자기 성장 역량 4요인 18문항, 공동체 참여 역량 4요인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413개의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종 33문항에 대하여 Cronbach's α 값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 값(Cronbach's α)은 .950으로 나타나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 성장 역량 영역(.944) 및 공동체 참여 역량 영역(.905)의 내적 합치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의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역시 긍정적 자기인식 .847, 자기 관리 .834, 진취성 .849, 전략적 문제해결력 .884, 존중 .800, 협력적 소통 .807, 규칙 준수 .712, 공동체 의식 .841로 나타나 하위요인별 신뢰도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결과는 .40 보다 낮은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표 37>.

6. 개념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사이의 일치도인 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각 영역에 대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분석하였다.

1) 집중타당도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각 영역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변인의 개념 신뢰도(CR ; construct reliability)를 계산하였다 (Anderson, J. & Gerbing, D. W., 1988; Fornell & Larcker, 1981). <표 3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념신뢰도는 .790~.861(기준값 .7 이상)로 확인되었으며(Hu & Bentler, 1999), 이를 통해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표 37. 최종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n=413)

영역	요인	문항	문항-총점 상관 계수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영역별 문항 내적 합치도	전체문항 내적 합치도	
자기 성장 역량	긍정적 자기인식	긍정적 자기인식1	.685	.847	.944	.950	
		긍정적 자기인식2	.759				
		긍정적 자기인식3	.670				
		긍정적 자기인식4	.670				
	자기 관리	자기 관리1	.672	.834			
		자기 관리2	.629				
		자기 관리3	.556				
		자기 관리4	.682				
	진취성	진취성1	.643	.849			
		진취성2	.628				
		진취성3	.682				
		진취성4	.723				
		진취성5	.720				
	전략적 문제해결력	전략적 문제해결력1	.712	.884			
		전략적 문제해결력2	.693				
		전략적 문제해결력3	.673				
		전략적 문제해결력4	.714				
		전략적 문제해결력5	.694				
	공동체 참여 역량	존중	존중1	.598			.800
			존중2	.654			
존중3			.649				
존중4			.539				
협력적 소통		협력적 소통1	.644	.807			
		협력적 소통2	.613				
		협력적 소통3	.650				
		협력적 소통4	.593				
규칙 준수		규칙 준수1	.574	.712			
		규칙 준수2	.527				
		규칙 준수3	.520				
		규칙 준수4	.564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1	.602	.841				
	공동체 의식2	.570					
	공동체 의식3	.609					

표 38.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개념신뢰도

(n=413)

영역	요인	문항	S.R.W. ^a	S.R.W. ²	Var(ϵ)	CR ^b
긍정적 자기인식	긍정적 자기인식	긍정적 자기인식1	.781	.610	.390	.861
		긍정적 자기인식2	.854	.729	.271	
		긍정적 자기인식3	.748	.560	.440	
		긍정적 자기인식4	.733	.537	.463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자기 관리1	.749	.561	.439	.833
		자기 관리2	.792	.627	.373	
		자기 관리3	.599	.359	.641	
		자기 관리4	.830	.689	.311	
자기 성장 역량	진취성	진취성1	.691	.477	.523	.848
		진취성2	.774	.599	.401	
		진취성3	.806	.650	.350	
		진취성4	.779	.607	.393	
		진취성5	.788	.621	.379	
전략적 문제 해결력	전략적 문제 해결력	전략적 문제해결력1	.773	.598	.402	.876
		전략적 문제해결력2	.767	.588	.412	
		전략적 문제해결력3	.756	.578	.428	
		전략적 문제해결력4	.774	.599	.401	
		전략적 문제해결력5	.756	.572	.428	
존중	존중	존중1	.671	.450	.550	.806
		존중2	.741	.549	.451	
		존중3	.791	.626	.374	
		존중4	.647	.419	.581	
협력적 소통	협력적 소통	협력적 소통1	.802	.643	.357	.828
		협력적 소통2	.702	.493	.507	
		협력적 소통3	.797	.635	.365	
		협력적 소통4	.648	.420	.580	
규칙 준수	규칙 준수	규칙 준수1	.725	.526	.474	.790
		규칙 준수2	.614	.377	.623	
		규칙 준수3	.706	.498	.502	
		규칙 준수4	.738	.545	.455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1	.838	.702	.298	.860
		공동체 의식2	.813	.661	.339	
		공동체 의식3	.807	.651	.349	

a) S.R.W.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b) CR(개념신뢰도) = $(\sum S.R.W.)^2 / (\sum S.R.W.)^2 + (\sum Var(\epsilon))$

2) 판별타당도

판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를 제공한 값(ϕ^2)을 나타내는 결정계수와 AVE(평균분산추출값 ; average variance extracted value)를 비교하였다. 평균분산추출값을<표 39>, <표 40>과 같이 결정계수를 구한 뒤 AVE와 비교한 결과 각 개념들의 결정계수는 AVE 지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배병렬, 2014)

표 39. 자기 성장 역량 하위 요인 간 결정계수 및 AVE

(n=413)

하위 요인	상관계수(Φ)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관리	진취성	전략적 문제해결력
긍정적 자기인식	.609 ^a			
자기 관리	0.406 ^b (.637 ^c)	.559 ^a		
진취성	0.441 ^b (.664 ^c)	0.359 ^b (.599 ^c)	.531 ^a	
전략적 문제해결력	0.247 ^b (.497 ^c)	0.341 ^b (.584 ^c)	0.250 ^b (.500 ^c)	.671 ^a

a) : $AVE(\text{평균분산추출값}) = \frac{\sum(S.R.W.^2)}{(\sum S.R.W.^2) + (\sum \text{Var}(\epsilon))}$

b) : 결정 계수

c) : 상관계수 간 곱

표 40. 공동체 참여 역량 하위 요인 간 결정계수 및 AVE

(n=413)

하위 요인	상관계수(Φ)			
	존중	협력적 소통	규칙 준수	공동체 의식
존중	.511 ^a			
협력적 소통	.437 ^b (.661 ^c)	.548 ^a		
규칙 준수	.578 ^b (.760 ^c)	.461 ^b (.679 ^c)	.639 ^a	
공동체 의식	.520 ^b (.721 ^c)	.379 ^b (.616 ^c)	.567 ^b (.753 ^c)	.586 ^a

a) : AVE(평균분산추출값) = $\sum(S.R.W.^2)/\{\sum S.R.W.^2+(\sum Var(\epsilon))\}$

b) : 결정 계수

c) : 상관계수 간 곱

7. 공인타당도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는 준거와 관련된 타당화(criterion related validity)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하위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척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표 41>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설문 응답자인 중학생 수준과 체육수업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각 요인별 준거 관련 척도는 요인별 5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41.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한 척도 현황

요인	준거 척도	비고
긍정적 자기인식	SAOQ : Self - Awareness Outcomes Questionnaire	Sutton(2016)
자기 관리	운동선수의 자기관리 검사지	허정훈(2003)이 개발
진취성	그릿-노력 지속성	Duckworth 등(2007)의 척도를 바탕으로 조흥식(2019)이 수정 보완
전략적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	Hepner & Petersen(1982)
존중	한국형 운동선수 인성검사지 -경기상황 영역 중 상대선수 존중	권성호, 전현수, 이근철(2014)이 개발
협력적 소통	협력적 의사소통	Meek 등 (2011), 김문명(2015)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김병옥(2018)이 수정 보완
규칙 준수	한국형 운동선수 인성검사지 -경기상황 영역 중 심판 판정, 부정적 심리 유발	권성호, 전현수, 이근철(2014)이 개발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식 지표	Chavis, Hogge, McMillan, & Wandersman(1986)에 의해 개발된 공동체의식 지표를 양승규(2015)가 수정 보완

상관분석결과,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모든 하위요인은 관련 준거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하위 요인의 공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42>.

표 4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하위요인과 준거 척도 간의 상관계수
(n=413)

하위요인과 준거척도	상관계수
긍정적 자기인식-자기인식	.613**
자기 관리-자기관리	.745**
진취성-그릿(노력 지속성)	.693**
전략적 문제해결력-문제해결력	.657**
존중-스포츠 인성(상대선수 존중)	.424**
협력적 소통-협력적 의사소통	.165**
규칙 준수 -스포츠 인성(심판 판정, 부정적 심리 유발)	.547**
공동체 의식-공동체 의식	.508**

* $p < .05$ ** $p < .01$

8. 교차 타당도 검증

교차타당도(cross validity)는 모델이 다른 표본에서 재현(replicate)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교차타당도 분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준비하는 방법은 표본분할법(sample-split approach)과 재표집법(resampling approach)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추정표본(calibration sample), 다른 하나는 검증표본(validation sample)으로 사용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검사를 타당화 하였으며, 추정표본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사용한 206명의 자료, 검증표본은 이를 제외한 207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자기 성장 역량 교차 타당도 검증

먼저 두 표본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자기 성장 역량 영역의 형태 동일성 모델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chi^2=472.439(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FI(.952), TLI(.943)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 역시 .045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각 잠재변인에 나타나는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와 기저 모형(형태 동일성모형)과의 $\Delta\chi^2$ 를 확인한 결과 $\Delta\chi^2$ 은 16.902($p>.05$)로 나타나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형 적합도 역시 CFI(.951), TLI(.945), RMSEA(.044)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이후 측정동일성 모델에서 절편(intercept)이 동일하도록 제약한 절편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간의 $\Delta\chi^2=9.009(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CFI(.953), TLI(.950), RMSEA(.042) 수치 역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절편동일성 또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부하량과 잠재변수간에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요인분산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모형 간 $\Delta\chi^2$ 를 확인한 결과 역시 $\Delta\chi^2 = 14.350(p>.05)$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CFI(.952), TLI(.951), RMSEA(.042)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산동일성이 검증되었다<표 43>.

표 43. 자기 성장 역량 교차 타당성 검증

모형	χ^2	df	$\Delta\chi^2$	p	CFI	TLI	RMSEA
형태 동일성	472.439	258			.952	.943	.045
측정 동일성	489.342	272	16.902	.261	.951	.945	.044
절편 동일성	498.351	290	9.009	.960	.953	.950	.042
요인분산 동일성	512.128	300	14.350	.158	.952	.951	.042

2) 공동체 참여 역량 교차 타당도 검증

다음으로 두 표본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공동체 참여 역량 영역의 형태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된 결과 χ^2 은 345.885($p < .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FI(.933), TLI(.915)는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051)도 적합도 지수 기준인 .08 이하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각 잠재변인에 나타나는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와 기저모형(형태 동일성모형)과의 $\Delta\chi^2$ 를 확인한 결과 $\Delta\chi^2=14.605$ ($p > .05$)로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형 적합도 역시 CFI(.932), TLI(.919), RMSEA(.050)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동일성이 검증

되었다. 이후 측정동일성 모델에서 절편(intercept)이 동일하도록 제약한 절편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간의 $\Delta\chi^2$ 은 17.109($p>.05$)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또한, CFI(.931), TLI(.924), RMSEA(.048) 수치 역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절편동일성 또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부하량과 잠재변수간에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요인분산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모형 간 $\Delta\chi^2$ 를 확인한 결과 $\Delta\chi^2=22.739$ ($p<.05$)로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CFI(.926), TLI(.923), RMSEA(.049)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표 44. 공동체 참여 역량 교차 타당성 검증

모형	χ^2	df	$\Delta\chi^2$	p	CFI	TLI	RMSEA
형태 동일성	345.885	166			.933	.915	.051
측정 동일성	360.490	177	14.605	.201	.932	.919	.050
절편 동일성	377.599	192	17.109	.312	.931	.924	.048
요인분산 동일성	400.338	202	22.739	.012	.926	.923	.049

9. 집단 간 구인 동등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이 배경변인(성별)에 따라 요인구조가 동일하게 측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여학생, 남학생)로 표본을 구분하여 집단 간 구인 동등성 검증을 살펴보았다.

집단별 구인 동등성 검증을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각 영역에 대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자기 성장 역량의 성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먼저 자기 성장 역량의 성별(남성, 여성)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χ^2 은 529.834($df=120$, $p<.001$)로 나타나 두 집단간 형태동일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χ^2 의 경우 표본에 민감하므로 $\chi^2/df(2.054)$ 와 CFI(.935), TLI(.923), RMSEA(.051)를 참고하여 모형의 적합도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형태동일성은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요인들이 잠재변수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chi^2=544.035(df=109$, $p<.001$), $\chi^2/df(2.022)$, CFI(.934), TLI(.925), RMSEA(.050)로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는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Delta\chi^2=14.201(p>.05)$ 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자기 성장 역량은 성별 간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표 45>.

표 45. 자기 성장 역량의 성별에 따른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집단	모형	χ^2	df	$\Delta\chi^2$	p	CFI	TLI	RMSEA
성별	형태 동일성	529.834	258			.935	.923	.051
	측정동일성	544.035	269	14.201	.222	.934	.925	.050

2) 공동체 함양 역량의 성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공동체 함양 역량의 성별(남성, 여성)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χ^2 은 373.297($df=166$, $p<.001$)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형태동일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χ^2 의 경우 표본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를 참고하여 모형의 동일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chi^2/df(2.249)$ 와 CFI(.922), TLI(.901), RMSEA(.055)를 참고하여 모형의 적합도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형태동일성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요인들이 잠재변수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chi^2=381.213(df=93$, $p<.001$), $\chi^2/df(2.154)$, CFI(.923), TLI(.909), RMSEA(.055)로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는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Delta\chi^2=7.916(p>0.05)$ 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중 공동체 함양 역량의 성별 간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표 46>.

표 46. 공동체 함양 역량의 성별에 따른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집단	모형	χ^2	df	$\Delta\chi^2$	p	CFI	TLI	RMSEA
성별	형태 동일성	373.297	166			.922	.901	.055
	측정동일성	381.213	93	7.916	.222	.923	.909	.050

V. 논의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

본 연구에서 탐색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 및 구조는 역량의 심리적인 내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중요성, 그리고 체육수업에서 심리적 역량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정립되었다.

Glaesser(2019)에 따르면, 역량 연구에서 모형은 역량 구조 모형 및 역량 수준 모형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어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역량 구조 모형은 특정 역량의 여러 측면의 존재를 가정하고 이들 측면과 그것들이 연구 중인 중요한 역량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검토하며, 후자는 특정 맥락에서 역량의 다양한 질적 수준의 차이를 탐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량 연구의 개념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에 대한 구조 모형을 구안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을 위해 문헌고찰과 3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에 대한 구성 개념을 탐색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교육과정 전문가, 스포츠심리학 전문가, 현장교사, 일반 직장 인사업무 담당자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문가 위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을 정의하고, 영역별 구조모형(안)을 구안하였으며,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구안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각 영역 및 하위 요인 개념 정의(안)와 영역별 구조모형(안)에 대한 타당도 검증하고, 전문가 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개념 정의 및 구조모형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구안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 및 하위 요인의 개념을 최종적으로 정립하였으며, 영역별 구조모형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여,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구조모형을 완성하였다.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구조는 자기 성장 역량 및 공동체 참여 역량과 같이 2개의 역량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각 영역별로 4개의 하위 요인이 도출되었다. 즉, 자기 성장 역량은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관리, 진취성, 전략적 문제해결력과 같이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체 참여 역량은 존중, 협력적 소통, 규칙 준수, 공동체 의식과 같은 4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구안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하위 영역 요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총론에서 자기관리 능력,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능력, 창의·융합 사고 능력, 정보처리 능력, 심미적 감성 능력 등의 6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구안된 자기 성장 역량의 자기 관리, 전략적 문제해결력, 공동체 참여 역량의 의사소통, 공동체 의식 등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ulewicz(1989)는 직무 역량과 관련한 연구에서 서로 다른 맥락에서 관리 기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업 특유의 역량이 전체 역량 중 30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70%는 광범위한 조직에 공통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에서 구안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이 부분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를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구안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과 2015 개정 체육교육과정의 체육과 교과 역량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체육과 교과 역량이 신체 활동 가치에 구조적으로 연계된 듯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박정준, 2017; 오승현, 2019; 윤기준, 2019), 체육 교과의 학습 수단인 신체활동적 측면, 즉 역량 중 기능적 부분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구안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은 기술과 관련된 역량 요소를 제외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김명수(2017)는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현장 적용에 대한 연구에서 체육과 교과 역량과 총론의 핵심역량을 관련지었는데, 건강 관리 능력의 경우 총론의 자기관리 능력, 공동체 의식,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경기 수행 능력은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구안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역시 두 개의 상위 영역에서 각각 4개의 독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역량 하위 요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2015 개정 체육 교육과정의 체육과 교과 역량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역량 하위 요소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구안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은 교육 현장에서 체육교사가 역량 기반 체육수업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역량 요소가 ‘전반적으로 통합된 전문 능력’으로서 체육과 교과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이 모든 교과에서 폭넓게 함양될 수 있음과 동시에 각 교과별 특수성에 따라 강조해야 하는 역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장용규, 이정택, 2016), 결과적으로 신체활동 가치 중심으로 역량을 제시하는 것은 가치 영역(예를 들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등) 내에서 특정한 역량(예를 들면, 건강에서는 자기 관리 능력, 도전 영역에서는 신체 수련 능력, 경쟁 영역에서는 경기 수행 능력, 표현에서는 신체 표현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 목표를 정하고, 학습 내용을 구성하며, 이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이는 체육교사가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오해했을 경우 가치 영역별로 한정된 특정 역량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구안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구조는 특정 가치 영역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역량 기반 체육수업이 특정 가치 영역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체육 교사가 도모하고자 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자신이 정한 신체활동 가치 영역에 맞춰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체육수업 역량 중 심리적 역량 측면에서 역량의 개념과 구조를 다루었는데, 특히, 자기 성장 역량과 공동체 함양 역량의 구분은 독일 및 오스트리아 등의 교육시스템에서 ‘행동 역량 (behavioural competency)’을 구분하는 접근 방식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각국의 교육시스템에서 역량은 아래와 같이 진술되었다(Deist & Winterton, 2005).

먼저, 독일 교육 시스템은 지식과 기술 등의 내용보다는 교과에서 역량으로 학습 분야를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동하는 ‘행동 역량(behavioural competency)’ 접근방식을 채택했다(Straka, 2004). 이에 따라 역량은 과목 역량,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의 측면에서 행동 역량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과목 역량은 주제별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목표 지향적이고 적절하며 방법론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판단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기술한다. 통찰력 있고 문제해결력을 갖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은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지역량과 기능역량을 모두 포함한다. 개인적 역량은 개인의 인격으로서 가족, 직업, 공적 생활의 발전 가능성, 요건 및 한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판단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인생 계획을 결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능력에는 직업적, 윤리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립성, 비판적 능력, 자신감, 신뢰성, 책임감, 의무 인식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적 역량은 인지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이 모두 포함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적 역량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주장하거나 도덕적 판단력을 발달시키는 등 도덕적인 자기 결정적 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별된다. 사회적 역량은 관계를 경험하고 형성하려는 의지와 능력, 이익과 긴장을 식별하고 이해하려는 의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발전 등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방법으로 타인과 교류하려는 능력을 기술한다. 따라서 사회적 역량은 기능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모두 포함한다.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과 유사한 형식의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역량을 인지 역량, 사회적 역량, 개인적 역량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Archan & Tutschek, 2002; Deist & Winterton, 2005). 인지역량은 특정 분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으로 과제를 숙달하고 적절한 문제 해결 전략을 개발하는 기술과 능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론적 사고력, 방법적 역량(학습기법 포함) 및 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기술이 사회적 역량에 의해 통합된다. 사회적 역량은 주로 타인을 상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협력할 능력과 의지로 정의되며, 타인과 책임감 있게 상호작용하고, 집단과 관계 지향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개인적 역량은 자신을 다루기 위한 핵심 자격요건들로 구성되며, 개인적으로 발전하려는 능력과 의지의 측면에서 정의되며, 일과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기술, 동기, 태도를 개발하기 위해 정의된다.

한편,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역량 연구에서는 역량 구조 모형 유형과 역량 수준 모형 유형으로 구별되어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Glaesser, 2019),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맥락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다양한 수준의 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의 결과는 각 역량 영역별 성취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이를 통해 체육 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은 역량 기반 체육수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역량 수준 모형에서 성취기준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소프트 스킬(soft skill) 개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 스킬은 대인관계나 소통과 같은 사회적 기술과 성격 특성 및 특질, 태도, 적성, 감성지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류청산, 2019; Coates, 2006; Pulko & Samir, 2003). 특정 분야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적, 기술적 요구 사항을 하드 스킬이라고 한다면, 소프트 스킬은 하드 스킬의 적용 과정 및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박미경, 조혁규, 2012). 좁은 의미에서 소프트 스킬은 ‘대인관계 및 개인 성장을 위한 심리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류청산, 2019). 또한, 역량의 구성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은 역량을 구성하는 대인관계 및 개인 성장을 위한 심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량 수준 모형에서 성취기준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소프트 스킬은 성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성취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시에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개발

선행연구,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립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구조에 따라 전문가 위원이 제안한 문항을 참조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최초 개발된 예비문항은 자기 성장 역량 영역의 4개 요인, 공동체 참여 역량 영역의 4개 요인에 대하여 8요인 8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2개 역량 영역 8요인에 대하여 각 6문항 총 48문항을 선정하였다.

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타당화

중학교 체육수업의 심리적 역량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2개 역량 영역 8요인 48문항을 예비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 학생 30명에 대해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여 1개 문항을 수정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2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첨도의 절대값 역시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성을 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배병렬, 2014).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델파이조사를 바탕으로 요인을 확정지었으므로, 요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인 이론적 확신 없이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박일혁, 엄한주, 이기봉, 2014).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자료에 기초한 분석법으로 우연한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Fabriga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따라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분할법(sample-split approach)으로 전체 자료의 절반을(n=206) 무작위로

추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립한 2개 역량 영역 8요인에 대하여 각 역량 영역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자기 성장 역량 및 공동체 참여 역량 각 영역별로 4요인 24개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적합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두 번에 걸쳐 표준화 회귀계수가 .60 미만으로 나타나거나, 문항간 오차 분산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문항을 제거한 뒤 최종적으로 자기 성장 역량 4요인 18문항, 공동체 참여 역량 4요인 17문항에 대해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적합도 지수인 RMSEA, CFI, TLI 수치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여 적합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배병렬, 2014). 최종적으로 자기 성장 역량 영역은 긍정적 자기인식 4문항, 자기 관리 4문항, 진취성 5문항, 전략적 문제해결력 5문항 총 4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체 참여 역량 영역은 존중 4문항, 협력적 소통 4문항, 규칙 준수 4문항, 공동체 의식 3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전체 413개의 자료에 대해 자기 성장 역량 18문항, 공동체 참여 역량 15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하위요인별 신뢰도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의 경우 일반적 기준치인 .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항 변별력 역시 확인되었다.

구인타당도가 검증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개념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6 이상으로 기준치에 부합하였고, 모든 요인의 C.R. 값이 .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기준치를 충족하여 개념신뢰도 또한 확보되었다. 이를 통해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에 대한 개념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판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의 제공한 값을 나타내는 결정계수가 AVE값보다 낮은지를 확인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각 개념들의 결정계수는 AVE지수들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각 하위 요인이 독립적으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준거관련 타당화 방법 중 하나인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와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당도가 검증된 기존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모든 하위요인은 각 준거 관련 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한편, 협력적 소통의 경우 .165($p < .001$)으로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고, 자기 관리는 .745($p < .001$)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나머지 요인도 유의한 상관관계(.423~.693)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가 다른 표본에서 재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료가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추정표본과 검증표본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표본분할법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한 자료와 나머지 자료로 구분하였으며 다집단 분석을 통해 자기 성장 역량의 형태 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이 모두 검증되었으며, 공동체 참여 역량의 형태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이 검증되어 교차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배경변인(성별)에 따라 요인구조가 동일하게 측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집단 간 구인 동등성 검증을 다집단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간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어 집단 간 같은 내용을 측정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후 집단 차이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역량의 구조적 차원에서 태도 및 가치관을 포함하는 심리적 영역은 개념 탐색을 위한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체육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함양해야 할 역량과 관련하여 심리적 역량은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수업의 역량과 관련하여 심리적 역량은 향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의미와 구조 대한 기본적인 개념적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래로 역량 관련 연구 중 양적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과 역량 함양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 도구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과 더불어 체육수업 현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수업 심리 역량에 대한 척도의 개발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발달 단계적으로 볼 때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Lapan, 2004; Turner, Trotter, Lapan, Czajka, Yang, & Brissert, 2006),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 탐색 및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심리적 역량 척도 개발을 통해 신체활동 가치와 교과 역량 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체육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체육수업 역량 개념 이해와 평가를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문헌고찰, 델파이 조사를 통해 자기 성장 역량(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관리, 진취성, 전략적 문제해결력)과 공동체 참여 역량(존중, 협력적 소통, 규칙 준수, 공동체 의식)으로 이루어진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구조를 정립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를 개발하였다.

중학교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최초로 개발됨으로 인해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역량 기반 체육수업의 교육적 효과로서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체육 교사에게는 역량 기반 체육수업의 방향을 정립하고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는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후속 연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을 2개 영역이 아닌 개인-타인-공동체로 구성된 3개 영역 구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구조와 비교를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량 개념과 관련하여 역량 구조 모형 개발과 함께 역량 수준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맥락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다양한 수준의 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탐색의 결과는 각 역량 영역별 성취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발달 단계상 중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을 탐색하고 척도를 개발하였다. 향후에는 중학생 시기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을 탐색하여, 각 학교급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무엇이고, 학교급간 역량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 정책 개발에 있어, 정책 입안자가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는 교육의 질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에는 두 가지 주

요 수행 방법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교사 연수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 지침과 교재 발행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입력 위주의 역량 개발 중심 접근법이다. 강의의 실제 결과, 즉 시험 성적, 중퇴율 등은 입력 위주의 접근법을 사용하는 정책 입안자에게는 관심의 초점이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출력 지향 접근법은 그러한 성과 측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표준 중심 접근법이다. 여기서 교육의 발전과 성공은 품질 관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표준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표준과 역량은 용어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거의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역량은 표준의 내용을 형성할 수 있지만 표준이 역량 이외의 영역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역량 연구를 진행해야 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상욱 (2019).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정립 및 측정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영혜, 박성호, 임후남, 정동철, 황정원, 설가인(2014). **2014 KEDI 학생 역량 지수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4-26.
- 곽영순, 백경선, 이미숙, 민재원, 김용, 이광우(2013). **2013 KICE 이슈페이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3-57-28.
- 교육과학기술부(2011).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5).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부.
- 권성호, 문민권, 박주영(2020). **중등체육에서 스포츠심리학의 연구 동향과 발전방향**. **한국체육과학회**, 29(2), 383-397.
- 권윤철(2017).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변화된 교과역량요소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조사: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택환(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초등학교 맨발 활동 탐색**. **인문사회**21, 10(1), 757-772.
- 김기현, 장근영(2010). **2009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216.
- 김동영, 곽영순, 동효관, 이상하, 이인호, 이정우, 김정효, 김현미, 박상욱, 최정숙(2013). **21C 미래사회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평가모형 및 평가문항 개발-초등학교 과학·중학교 사회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13-6-1.
- 김명수(2017a).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3(1), 1-14.
- 김명수(2017b).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체육과 교사 교육**.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3(3), 135-147.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1**.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nl 15, 45-58.
-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5-R18-3.
- 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이광현(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II): 학생역량 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3-23.
- 김혜원(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체육교과서 교과역량 내용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재식, 이영석(2018). **신체 수련 역량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성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4(2), 33-52.
- 노윤신, 리상섭(2013a). **국내 4년제 대학교 대학생의 역량모델 구축 사례: D 여대를 중심으로**.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15(1), 79-101.
- 노윤신, 리상섭(2013b). **대학생 역량진단 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D 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인력개발학회, 15(3), 273-305.
- 류청산 (2019). **소프트 스킬을 이용한 실과 교과 역량의 예측모형 탐색**. 실과교육연구, 25(2), 1-17.
- 박미경, 조혁규 (2012). **소프트 스킬 함양 교육 사례**. 공학교육연구, 15(3), 59-65.
- 박영숙, 박경준, 김진화, 김성기, 김기수(2006). **한국사회의 미래예측과 교육의 대응전략 모색에 관한 연구**. 교육인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지정-44.
- 박웅 (2017). **중학교 체육교과서에 구현된 교과역량의 내용 및 교수·학습방법 분석**.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일혁, 엄한주, 이기봉 (2014). **체육학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이용의**

- 문제점과 올바른 적용.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6(1), 1-22.
- 박정준(2017). 체육 교과 역량 함양 교육에 관한 시도주체별 인식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2), 1-17.
- 박재윤, 이정미, 김택형(2010). **미래교육비전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10-08.
- 박지영, 김수연, 장경환 (2019).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른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생태주의에 입각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수업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9(21), 427-452.
- 박혜연(2019). 역량중심의 체육과 표현활동 수업 실천하기: 교수학습방법으로서 역량 기능의 요소 및 적용방안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8(1), 247-258.
- 배병렬(2014). 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지영, 김기철, 유창완, 윤기준(2019).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OECD 역량 반영 분석: 교육과정 내용 맵핑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포럼학회지, 26(2), 1-18.
-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4-R20.
- 소경희, 이화진, 김기연(2001).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 연구 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1-12.
- 신민혜, 조남기(2015).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시안에 따른 표현영역에서의 창의역량 하위요인과 적용**.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3(3), 121-133.
- 오승현(2019). 체육 교과의 역량 개념에 대한 접근과 이해: 전인교육과 신체 역량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22(2), 1-17.
- 유창완, 윤기준 (2019)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체제 개선 방향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24(1), 1-15.
- 유창완, 윤기준, 전세명(2017). 교과 역량 반영 체육수업 실천의 난점과

- 과제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6(5), 267-282.
- 윤기준(2019). 차기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쟁점. **체육과학연구**, 30(2), 360-370.
- 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비전 연구(I) - 핵심역량 준거와 영역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7-1.
-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김혜진(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비전 연구(II) - 핵심역량 영역별 하위 요소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8-7-1.
- 이광우, 정영근, 서영진, 정창우, 최정순, 박문환, 이봉우, 진의남, 유정애, 이경언, 박소영, 주형미, 백남진, 온정덕, 이근호, 김사훈(2014).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4-7.
- 이광훈, 최홍섭(2017). 핵심역량 뉴스포츠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체육수업 태도 및 만족도 변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2), 701-719.
-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RRC 2009-10-1.
- 이근호, 이미경, 서지영, 변희현, 김기철, 유창완, 이주연, 김종윤, 윤기준(2017).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조사에 따른 역량 중심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7-8.
- 이근호, 이인제, 이상하, 김현미, 김기철, 이명진, 김사훈(2013).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 평가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3-2.

- 이미경, 서지영, 변희현, 이근호, 김기철, 유창완, 이주연, 김종윤, 윤기준 (2017).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내용 맵핑-체육과와 수학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6-6.
- 이운경, 조미혜(2016). 역량기반 초중등 무용교육과정 내용체계 개발 사례. **한국체육학회지**, 55(6), 265-295.
- 이중범(2005). **초등학생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 이영대,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석민, 정영근, 남미숙, 이진남 (2009).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II)**.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태구, 이한주(2015). 백워드 교육모형을 활용한 협력적 문제해결력 함양 양궁단원 체육수업. **체육과학연구**, 26(4), 917-934.
- 임언, 최동선, 박민정(2008). **미래 사회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8-7-2.
- 임효신(201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용규, 이정택(2016).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중심의 의미와 초등체육의 지향.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2(1), 77-91.
- 정덕조, 이순태(2016).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핵심역량 반영 현황: 일반선택과목 '운동과 건강'을 중심으로. **체육발전**, 36(1), 63-75.
- 정성휘(2004). 비서의 핵심역량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13(1), 23-43.
- 정현철(2018).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현장적용 사례 및 과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1), 269-287.
- 조기희(2017).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융합체육수업 사례. **우리체육**, 16, 21-25.
- 조난심, 최의창, 은지용(2015). 교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과 교원의 역량.

- 한국교원교육학회지, 67, 135-180.
- 조대연, 김희규, 김한별(2008). **미래의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8-7-3.
- 조장희(2011).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과학기술교육의 방향**. 한국교육미래비전,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기획위원회 편. 서울: 학지사.
- 천항욱(2017). 스쿠버 다이빙의 체육교육적 가치 탐색: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6(4), 219-233.
- 최유현, 유태명, 문대영, 최지연, 강경균(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9-10-1.
- 최의창(2017). 체육진로교육과 체육진로적성: 학교와 체육교사는 체육진로수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우리체육**, 17, 46-54.
- 최의창(2018). **코칭이란 무엇인가?**. 서울: 레인보우북스.
- 최의창, 전세명(2011). 운동소양의 함양: 전인교육을 위한 초등체육의 목적 재검토. **한국체육학회지**, 50(1), 93-107.
- 채진병(2018). **체육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학교 거리도전 수업 사례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민수, 박현주, 김용진, 강남화, 오필석, 김미점, 민재식, 이윤희, 한효정, 김무경, 고성우, 손미현(2018).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기초한 과학과 핵심역량 조사 문항의 개발 및 적용.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8(4), 495-504.
- 홍순정, 장은정, 서윤경(2004). 원격교육 교수자의 역량모델 규명.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0(2), 81-112.
- 홍애령, 조미혜(2019). 역량중심 체육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표현 영역의 내용체계 및 역량 요소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551-571.
- 홍원표, 이근호(2010). **외국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현장적용 사례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0-2.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 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nderson, J.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chan, S. & Tutschek, E. (2002). *Schlüsselqualifikationen: Wie vermitteln sie Lehrlingen?*. Vienna: 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 der Wirtschaft.
- Azzarito, L., Solomon, M. A. (2006). A poststructural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gendered and racialized bodily meaning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5, 75-98.
- Binkley, Erstad, Herman, Raizen, & Ripley (2010). *Defining twenty-first century skills*. In P. Griffin, B. McGaw, & E. Care (Eds.),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New York, NY: Springer.
- Boam, R. & Sparrow, P. (1992). *Designing and Achieving Competency*. London: McGraw-Hill.
- Boateng, G. O., Neilands, T. B., Frongillo, E. A., Melgar-Quinonez, H. R., & Young, S. L. (2018). Best practices for developing and validating scales for health,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a primer. *Frontiers in Public Health*, 6.
- Boon, J. and van der Klink, M. (2002). Competencies: the triumph of a fuzzy concept.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nual Conference, Honolulu, HA, 27 February - 3 March, in: Proceedings*, 1, 327 - 334.
- Canton, J. (2006). *The extreme future*. Dutton: Penguin Group.

- Coates, D. E. (2006) People Skills Training: Are you getting return on investment? *Performance Support Systems*. Retrieved 20 November 2020 from <http://www.praxisconsulting.org/PeopleSkills.pdf>.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dministration & use manual*. Monterey, CA: CBT/McGraw-Hill.
- Dooley, K. E., Lindner, J. R., Dooley, L. M. & Alagaraja, M. (2004). Behaviorally anchored competencies: evaluation tool for training via dista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7(3), 315 - 332.
- Dubois, D. D. (1993). *Competency-based performance improvement: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change*. MA: HRD Press.
- Dulewicz, V. (1989). Assessment centres as the route to competence, *Personnel Management*, November, 56 - 59.
- Elkin, G. (1990). Competency-bas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dustrial and Commercial Training*, 22(4), 20 - 25.
- Falender, C. A., & Shafranske, E. P. (2007). Competence in competency-based supervision practice: construct and applica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8(3), 232-240.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Feb(1), 39-50.
- Glaesser, J (2019). Competence in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a critical discussion. *Oxford Review of Education*, 45(1), 70-85. DOI :10.1080/03054985.2018.1493987.
- Glesne, C. (1999). *Becoming a qualitative researcher: An introduction(2nd)*. MA: Addison, Wasley Longman.
- Gordon, J., Halasz, G., Krawczyk, M., Leney, T., Michel, A., Pepper,

- D., Putkiewicz, E., Wisniewski, J. (2009). *Key competences in Europe: opening doors for lifelong learners across the school curriculum and teacher education*. Warsaw : CASE.
- Hartle, F. (1995). *How to Re-engineer your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London: Kogan Page.
- Kantrowitz, T. M. (2005).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a measure of soft skills performanc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Le Deist, F. D., & Winterton, J. (2005). What is compete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8(1), 27-46.
- McCallum, R. C., Widaman, K. F., Zhang, S., &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1), 84.
-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irabile, R. (1997).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ing. *Training and Development*, 51(8), 73-77.
- Mitrani, A., Dalziel, M. & Fitt, D. (1992). *Competency 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 London:Kogan Page.
-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Wellington: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 Norris, N. (1991). The trouble with competence.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21(3), 1 - 11.
- OECD (2002).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OECD DeSeCo Project. (2006).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summary*. Retrieved May 15, 2020, from <http://www.oecd.org/dataoecd/47/61/35070367.pdf>.
- OECD(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DeSeCo)*. OECD Press.

- OECD(2017). *Progress Report of the OECD Learning Framework 2030*[EDU/EDPC(2017)25].
- Olejnik, S., & Algina, J. (2000). Measures of effect size for comparative studies: Applications, interpretations, and limita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3), 241-286.
-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9). *P21 framework definition*. Retrieved May 15, 2020, from http://www.p21.org/storage/documents/P21_Framework_Definitions.pdf.
- Pazosa, P., Micarib, M., & Lightb, G. (2010). Developing an instrument to characterise peer-led groups in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s: assessing problem-solving approach and group interaction.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35*(2), 191-208.
- Pulko S. H. & Parikh, S. (2003), Teaching ‘Soft’ Skills to Engine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Education, Oct*, 1-7.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3). *Highlights from the OECD Project 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search Association in Chicago.
- Scardamalia, M., Bransford, J., Kozma, R., & Quellmalz, E. (2012). *New assessments and environments for knowledge building*. In P. Griffin, B. McGaw, & E. Care (Eds.),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New York, NY: Springer.
- Siedentop, D., Doutsis, P., Tsangaridou, N., Ward, P., & Rauschenbach, J. (1994). Don’t sweat gym! An analysi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3*, 375-394.

- Smith, B. (1993). Building managers from the inside out: competency based action learning.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12(1), 43 - 48.
- Snyder, A. & Ebeling, H. W. (1992). Targeting a company's real core competencies. *Journal of Business Strategy*, 13(6), 26 - 32.
- Steinhardt, M. A. (1992). *Physical education*. In P. W. Jackson(Ed.),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NY: Macmillan.
- Straka, G. A. (2004)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competence, in: *3rd European Research Repor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Sutton, A. (2016). Measuring the effects of self-awareness: Construction of the self-awareness outcomes questionnaire.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12(4), 645-658.
- Winterton, J., & Deist, D. F. (2005). What Is Compete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8(1), 27-46. DOI: 10.1080/1367886042000338227

<부록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설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1차)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 중학교 체육수업을 통해 증진할 수 있는 심리적 역량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위한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수업 개선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문민권
(010-0000-0000 / 000000@snu.ac.kr)

*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수업을 통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 심리적 역량의 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미래 사회에 당면한 현상 또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중학교 체육수업을 통해 증진할 수 있는 핵심역량 중 심리적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문제 해결 능력, 신체 표현 능력, 신체적 자기 관리, 팀 워크 형성, 전략 실행 능력 등)

※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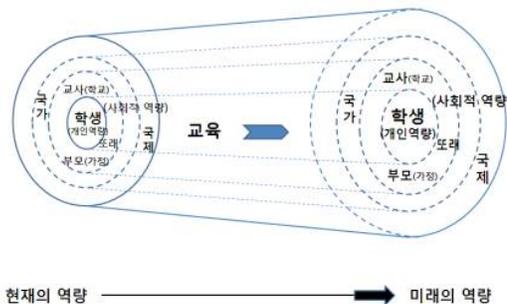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역량 중 중학교 체육수업을 통해 증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지, 태도, 가치관 등을 포함한 능력

※ 대한민국에서 예견되는 미래 사회의 특징

과학기술의 진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심화, 다원주의 강화,
 지식정보 기반 사회의 도래, 네트워크 사회, 친환경사회, 평생학습 사회

※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개념적 기본 구조

1. 개인적 측면에서 시작하여 점차 공동체(또래, 부모, 교사) 생활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확장되고, 국가사회 및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확장되는 개념
2. 체육 수업을 통한 학생의 현재의 역량이 미래 성인이 되었을 때 더욱 향상되는 개념



* <응답 예시>

전략 실행 능력 : 전략은 체육 수업의 도전 및 경쟁 등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기능으로 현재 및 미래에 필요한 핵심적인 소양이기 때문임.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근거 혹은 이유

<부록2>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설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2차)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 중학교 체육수업을 통해 증진할 수 있는 심리적 역량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위한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수업 개선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문민권
(010-0000-0000 / 000000@snu.ac.kr)

*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에 대한 안내

□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

중학교 체육수업의 심리적 역량 개념 모형은 총 2개 영역, 7개 하위요소로 구성됨.

- ☞ 중학생 체육수업의 심리적 역량 개념 모형 구안은 1차 델파이 조사(조사지 하단의 별지 참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안
 - 국내·외 중학생 역량 개념모형에 근거하여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이론적 근거 및 사회 환경변화 등을 반영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및 체육과 역량 내용 반영

☞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영역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별 개념 정의(안)

영역(안)	영역별 개념 정의(안)
개인 성장 역량	개인적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관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미래 사회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사회적 측면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실천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 중학교 체육수업의 심리적 역량의 하위 요인

중학교 체육수업의 심리적 역량 영역별 개념 정의(안)

영역(안)	하위요인(안)	하위요인별 개념 정의(안)
개인 성장 역량	자기관리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와 의지를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필요한 전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긍정적 자기인식	다양한 경험의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식하며, 삶을 의미있게 관찰하여 통찰하는 역량
	실천의지 /진취성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도전하는 역량
	종합적 사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통섭하여 전략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존중/배려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재 자체에 가치와 관심을 두고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협력적 소통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관계를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여 최선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량
	규칙 준수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예절, 규칙, 법규 등을 주체적으로 준수하는 역량

1. [개인 성장 역량] 개념에 대한 의견

역량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인 성장 역량의 개념에 대한 타당성을 체크한 후,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개인 성장 역량 개념

개인적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관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미래 사회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 의견(의견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개념

사회적 측면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실천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 의견(의견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역량 하위 영역]에 대한 의견

역량에 포함되어야 할 영역은 다음과 같이 개인 성장 역량 4개 영역,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3개 영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각 하위 영역의 구성이 타당한지와 각 영역의 개념은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체육수업 개인 성장 역량 영역]

<p>0. 아래와 같은 중학교 체육수업 개인 성장 역량 영역 설정은 적절한가요? ① 자기관리 ② 긍정적 자기인식 ③ 실천의지/진취성 ④ 종합적 사고</p>
<p>영역 설정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 의견(의견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p>
<p>1. 자기관리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와 의지를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필요한 전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 의견 :</p>
<p>2. 긍정적 자기인식 다양한 경험의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식하며, 삶을 의미있게 관찰하여 통찰하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 의견 :</p>
<p>3. 실천의지/진취성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도전하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 의견 :</p>
<p>4. 종합적 사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통섭하여 전략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 의견 :</p>

[중학교 체육수업의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영역]

<p>0. 아래와 같은 중학교 체육수업의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영역 설정은 적절한가요? ① 존중/배려 ② 협력적 소통 ③ 규칙 준수</p>
<p>영역 설정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 의견(의견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p>
<p>1. 존중/배려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재 자체에 가치와 관심을 두고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 의견 :</p>
<p>2. 협력적 소통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관계를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여 최선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 의견 :</p>
<p>3. 규칙 준수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예절, 규칙, 법규 등을 주체적으로 준수하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 의견 :</p>

3.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별 하위요인별] 문항 개발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의 영역별 하위요인에 적절한 문항을 검토하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별 하위요인]		문항 개발(제안)
개인 성장 역량	자기관리	1. 2.
	긍정적 자기인식	1. 2.
	실천의지/진취성	1. 2.
	종합적 사고	1. 2.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지속 역량	존중/배려	1. 2.
	협력적 소통	1. 2.
	규칙 준수	1. 2.

<부록3>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설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3차)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 중학교 체육수업을 통해 증진할 수 있는 심리적 역량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위한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수업 개선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문민권
(010-0000-0000 / 000000@snu.ac.kr)

*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에 대한 안내

□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구조 모형 및 척도 예비문항 pool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1차,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개념 구조를 재검토하고,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인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의 예비문항 pool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비문항 pool은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개념 모형의 영역, 하위요인을 구안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아래의 예비문항이 개념 모형에 적합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1. [자기 성장 역량] 개념에 대한 의견

역량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인 성장 역량의 개념에 대한 타당성을 체크한 후,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영역별 개념 정의(안)

영역(안)	영역별 개념 정의(안)
자기 성장 역량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미래 사회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공동체의 구성원을 존중하고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실천하고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 자기 성장 역량 개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미래 사회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 공동체 참여 역량 개념

공동체의 구성원을 존중하고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실천하고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 자기 성장 역량 개념 및 공동체 참여 역량 개념에 대한 의견

→ 의견(의견이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학교 체육수업의 심리적 역량 영역별 개념 정의(안)

영역(안)	하위요인(안)	하위요인별 개념 정의(안)
자기 성장 역량	긍정적 자기 인식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긍정적으로 실천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
	자기 관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진취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도전하는 역량
	전략적 문제 해결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전략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존중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을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협력적 소통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량
	규칙 준수	공동체의 규칙, 규범 등을 이해하고 부여받은 권리와 책임을 주체적으로 준수하여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역량
	공동체 의식	공동체 구성원과의 공유된 믿음으로 연결된 정서, 가치관, 윤리의식 등을 포함한 사회결속 역량

<p>0. 아래와 같은 중학교 체육수업의 자기 성장 역량 영역 설정은 적절한가요? ① 긍정적 자기인식 ② 자기 관리 ③ 진취성 ④ 전략적 문제 해결력</p>
<p>영역 설정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1. 긍정적 자기인식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긍정적으로 실천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2. 자기 관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3. 진취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도전하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4. 전략적 문제 해결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 종합 의견 :</p>

<p>0. 아래와 같은 중학교 체육수업의 공동체 참여 역량 영역 설정은 적절한가요? ① 존중 ② 협력적 소통 ③ 규칙 준수 ④ 공동체 의식</p>
<p>영역 설정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1. 존중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을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2. 협력적 소통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3. 규칙 준수 공동체의 규칙, 규범 등을 이해하고 부여받은 권리와 책임을 주체적으로 준수하여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4. 공동체 의식 공동체 구성원과의 공유된 믿음으로 연결된 정서, 가치관, 윤리의식 등을 포함한 사회결속 역량</p>
<p>개념의 타당성(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p>
<p>→ 종합 의견 :</p>

[중학교 체육수업의 심리적 역량 척도 예비문항]

영역	하위요소	예비문항	문항적절성					우선 순위 (6번 까지)	검토의견
			매우 부적절	↔	보통	↔	매우 적절		
			①	②	③	④	⑤		
자기 성장 역량	긍정적 자기인식 -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긍정적으로 실천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	현재보다 미래에 더 향상된 운동 실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실력이 향상되리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체육활동을 위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어떤 체육 수업 과제가 주어져도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운동 능력이 우수하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평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체육수업 환경이 바뀌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 관리 -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필요한 전략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체육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은 내 미래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자신이 세운 운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과제 활동시 주변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우선 순위를 정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체육 수업에서 배운 기능을 스스로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실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체육 수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꾸준하게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왕복 오래달리기를 하기 전날에는 되도록 무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체육수업 복장을 잘 갖추고 수업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건강 관리를 위해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영역	하위요소	예비문항	문항적절성					우선 순위 (6번 까지)	검토의견
			매우 부적절	⇔	보통	⇔	매우 적절		
			①	②	③	④	⑤		
자기 성장 역량	진취성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도전하는 역량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습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잘 하지 못하는 종목에 대한 수업이라도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스스로 정한 목표는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과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자신이 목표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도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어려운 동작을 연습하더라도 용기있게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략적 문제해결 -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복잡한 운동기술이라도 끈기있게 도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기량이 우수한 팀이나 친구와의 대결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신 또는 친구의 기술 동작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패배 또는 실패의 원인을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경기에서 상대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 강도, 시간,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과제가 주어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경기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침착하게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어려운 동작도 하나하나 동작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친구의 운동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과 비교 점검표를 따라 분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체육 수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 종료 후 체육시간에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영역	하위요소	예비문항	문항적절성					우선 순위 (6번 까지)	검토의견
			매우 부적절	↔	보통	↔	매우 적절		
			①	②	③	④	⑤		
공동 체 참여 역량	존중 -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을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경기 중 마찰이 있었던 친구의 입장에서 친구의 기분에 대해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신보다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도와주면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친하지 않은 친구와 같은 모둠이 되면, 기분이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승리를 위해서는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라도 멋진 기술을 보여주면 칭찬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친구가 부상을 당하더라도 경기가 중단되지 않으면 계속 경기를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 경기 예절에 대해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상대 선수라도 뛰어난 기술을 펼치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경기에 지더라도 진심으로 상대를 축하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협력적 소통 -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량	동작이 어색한 친구를 보면 웃음을 잘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실력이 부족한 친구를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상대방이 부상을 입으면 반칙 여부에 상관없이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모둠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이다.	①	②	③	④	⑤		
		승리를 위해 경기 중 친구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모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협력하여 대책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경기 중 나와 친구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모둠 과제를 위해 친구들과 의논하는 것을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술 향상을 위한 나만의 방법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친구의 작전 계획이 나와 다르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운동 기술 향상을 위한 친구의 조언을 주의깊게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모둠 활동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소통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팀 활동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영역	하위요소	예비문항	문항적절성					우선 순위 (6번 까지)	검토의견
			매우 부적절	⇔	보통	⇔	매우 적절		
			①	②	③	④	⑤		
공동 체 참여 역량	규칙 준수 - 공동체의 규칙, 규범 등을 이해하고 부여받은 권리와 책임을 주체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역량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심판이 오심하더라도 바로 인정하고 다음 경기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경기중 자신 또는 우리팀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에게 불리한 경기규칙이라도 최대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승리를 위해 때로는 심판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규칙을 어길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심판이 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더라도 잘못된 판정이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체육수업 규칙을 만들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 의식 - 공동체 구성원과의 공유된 믿음으로 연결된 정서, 가치관, 윤리의식 등을 포함한 사회결속 역량	내가 심판이라면, 친한 친구가 있는 팀에 유리한 판정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규칙을 어기고 이기는 것보다 규칙을 지키고 지는 것이 더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일단 모둠이 구성되면 내가 속한 모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팀의 승리와 패배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팀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팀이 승리하면 진심으로 기뻐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모둠을 구성할 때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속한 모듬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모듬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 의식 - 공동체 구성원과의 공유된 믿음으로 연결된 정서, 가치관, 윤리의식 등을 포함한 사회결속 역량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모듬이 승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작은 역할이라도 모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돕고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모듬에서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경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기 상황에 집중하고 친구들을 응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의 목적은 중학생 체육수업의 심리적 역량에 관해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분석에 사용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본 설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스포츠심리학 박사과정 문민권
 (010-0000-0000 / 000000@snu.ac.kr)

1. 성별 : ① 여학생 ② 남학생
 2. 학년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 체육수업 참여를 통한 자신의 느낌, 생각에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실력이 향상되리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떤 체육 수업 과제가 주어져도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운동 능력이 우수하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체육수업 환경이 바뀌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보다 미래에 더 향상된 운동 실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떤 체육 수업 과제가 주어져도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꾸준하게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체육 수업에서 배운 기능을 스스로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우선 순위를 정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신이 목표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14	과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스스로 정한 목표는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복잡한 운동기술이라도 끈기있게 도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기량이 우수한 팀이나 친구와의 대결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습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자신 또는 친구의 기술 동작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경기에서 상대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경기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침착하게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2	패배나 실패의 원인을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3	체육 수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과제가 주어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경기 중 마찰이 있었던 친구의 입장에서 친구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수업 경기 예절에 대해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7	친구의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8	상대 선수라도 뛰어난 기술을 펼치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9	경기에 지더라도 진심으로 상대를 축하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0	상대방이 부상을 입으면 반칙 여부에 상관없이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모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협력하여 대책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모듬 활동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소통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승리를 위해 경기 중 친구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4	모듬 과제를 위해 친구들과 의논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6	경기 중 나와 친구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승패에 관계 없이 심판이 보지 않더라도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나에게 불리한 경기규칙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심판이 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더라도 잘못된 판정이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체육수업 규칙을 만들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규칙을 어기고 이기는 것보다 규칙을 지키고 지는 것이 더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43	팀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팀이 승리하면 진심으로 기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4	경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기 상황에 집중하고 친구들을 응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팀의 승리와 패배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6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모듬이 승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모듬에서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8	작은 역할이라도 모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돕고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5>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척도 최종 문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떤 체육 수업 과제가 주어져도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운동 능력이 우수하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수업 환경이 바뀌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보다 미래에 더 향상된 운동 실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꾸준히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체육 수업에서 배운 기능을 스스로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신이 목표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10	과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스스로 정한 목표는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복잡한 운동기술이라도 끈기있게 도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기량이 우수한 팀이나 친구와의 대결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자신 또는 친구의 기술 동작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경기에서 상대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경기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침착하게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7	패배나 실패의 원인을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8	체육 수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수업 경기 예절에 대해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친구의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상대 선수라도 뛰어난 기술을 펼치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상대방이 부상을 입으면 반칙 여부에 상관없이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협력하여 대책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승리를 위해 경기 중 친구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모든 과제를 위해 친구들과 의논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승패에 관계 없이 심판이 보지 않더라도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체육수업 규칙을 만들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규칙을 어기고 이기는 것보다 규칙을 지키고 지는 것이 더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모두가 승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모둠에서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3	작은 역할이라도 모둠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돕고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긍정적 자기인식 : 1,2,3,4 자기 관리 : 5,6,7,8 진취성 : 9,10,11,12,13 전략적 문제해결력 : 14,15,16,17,18
 존중 : 19, 20, 21, 22 협력적 소통 : 23,24,25,26 규칙준수 : 27,28,29,30 공동체 의식 : 31,32,33

<부록6>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 자기 성장 역량 1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n=2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1																								
2	.481	1																							
3	.373	.661	1																						
4	.361	.619	.628	1																					
5	.486	.576	.598	.588	1																				
6	.786	.542	.423	.458	.607	1																			
7	.279	.487	.545	.366	.400	.310	1																		
8	.180	.462	.538	.428	.377	.315	.612	1																	
9	.300	.427	.406	.303	.293	.305	.446	.417	1																
10	-.003	.130	.143	.151	.160	.090	.173	.229	.344	1															
11	.235	.492	.544	.430	.437	.284	.603	.671	.521	.335	1														
12	.191	.268	.329	.336	.278	.230	.353	.378	.416	.571	.447	1													
13	.359	.401	.515	.483	.425	.417	.414	.451	.356	.228	.405	.384	1												
14	.458	.484	.565	.456	.524	.486	.398	.445	.354	.280	.464	.444	.622	1											
15	.518	.519	.598	.489	.515	.485	.488	.465	.345	.245	.443	.430	.561	.669	1										
16	.492	.539	.600	.504	.513	.544	.502	.468	.441	.168	.490	.374	.490	.560	.631	1									
17	.502	.603	.612	.500	.535	.542	.435	.407	.312	.163	.492	.261	.475	.558	.656	.648	1								
18	.305	.471	.541	.431	.508	.372	.419	.439	.300	.251	.517	.339	.406	.564	.539	.556	.619	1							
19	.335	.523	.639	.512	.468	.363	.432	.440	.387	.217	.497	.310	.435	.523	.498	.525	.557	.622	1						
20	.307	.498	.623	.521	.467	.377	.407	.470	.409	.227	.476	.324	.499	.462	.449	.593	.551	.510	.652	1					
21	.303	.467	.533	.442	.471	.382	.427	.416	.423	.308	.479	.390	.449	.518	.498	.488	.493	.607	.556	.573	1				
22	.300	.437	.547	.476	.512	.387	.381	.490	.371	.251	.446	.361	.539	.553	.491	.488	.508	.476	.562	.556	.637	1			
23	.368	.455	.501	.401	.506	.445	.311	.361	.384	.282	.424	.358	.544	.574	.524	.522	.586	.526	.561	.538	.583	.640	1		
24	.306	.319	.306	.344	.398	.372	.271	.297	.336	.284	.368	.355	.460	.523	.407	.482	.384	.386	.353	.453	.518	.479	.536	1	

<부록7>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 자기 성장 역량 2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n=2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481	1																		
3	.373	.661	1																	
4	.361	.619	.628	1																
5	.486	.576	.598	.588	1															
6	.786	.542	.423	.458	.607	1														
7	.279	.487	.545	.366	.400	.310	1													
8	.180	.462	.538	.428	.377	.315	.612	1												
9	.300	.427	.406	.303	.293	.305	.446	.417	1											
10	-.003	.130	.143	.151	.160	.090	.173	.229	.344	1										
11	.235	.492	.544	.430	.437	.284	.603	.671	.521	.335	1									
12	.191	.268	.329	.336	.278	.230	.353	.378	.416	.571	.447	1								
13	.359	.401	.515	.483	.425	.417	.414	.451	.356	.228	.405	.384	1							
14	.458	.484	.565	.456	.524	.486	.398	.445	.354	.280	.464	.444	.622	1						
15	.518	.519	.598	.489	.515	.485	.488	.465	.345	.245	.443	.430	.561	.669	1					
16	.492	.539	.600	.504	.513	.544	.502	.468	.441	.168	.490	.374	.490	.560	.631	1				
17	.502	.603	.612	.500	.535	.542	.435	.407	.312	.163	.492	.261	.475	.558	.656	.648	1			
18	.305	.471	.541	.431	.508	.372	.419	.439	.300	.251	.517	.339	.406	.564	.539	.556	.619	1		
19	.335	.523	.639	.512	.468	.363	.432	.440	.387	.217	.497	.310	.435	.523	.498	.525	.557	.622	1	
20	.307	.498	.623	.521	.467	.377	.407	.470	.409	.227	.476	.324	.499	.462	.449	.593	.551	.510	.652	1
21	.303	.467	.533	.442	.471	.382	.427	.416	.423	.308	.479	.390	.449	.518	.498	.488	.493	.607	.556	.573
22	.300	.437	.547	.476	.512	.387	.381	.490	.371	.251	.446	.361	.539	.553	.491	.488	.508	.476	.562	.556

<부록8>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 자기 성장 역량 최종(3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n=2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661	1																
3	.619	.628	1															
4	.576	.598	.588	1														
5	.487	.545	.366	.400	1													
6	.462	.538	.428	.377	.612	1												
7	.427	.406	.303	.293	.446	.417	1											
8	.492	.544	.430	.437	.603	.671	.521	1										
9	.401	.515	.483	.425	.414	.451	.356	.405	1									
10	.484	.565	.456	.524	.398	.445	.354	.464	.622	1								
11	.519	.598	.489	.515	.488	.465	.345	.443	.561	.669	1							
12	.539	.600	.504	.513	.502	.468	.441	.490	.490	.560	.631	1						
13	.603	.612	.500	.535	.435	.407	.312	.492	.475	.558	.656	.648	1					
14	.523	.639	.512	.468	.432	.440	.387	.497	.435	.523	.498	.525	.557	1				
15	.498	.623	.521	.467	.407	.470	.409	.476	.499	.462	.449	.593	.551	.652	1			
16	.467	.533	.442	.471	.427	.416	.423	.479	.449	.518	.498	.488	.493	.556	.573	1		
17	.437	.547	.476	.512	.381	.490	.371	.446	.539	.553	.491	.488	.508	.562	.556	.637	1	
18	.455	.501	.401	.506	.311	.361	.384	.424	.544	.574	.524	.522	.586	.561	.538	.583	.640	1

<부록9>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 공동체 참여 역량 1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n=2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1																						
2	.412	1																					
3	.463	.474	1																				
4	.483	.501	.619	1																			
5	.519	.345	.611	.602	1																		
6	.385	.469	.447	.521	.358	1																	
7	.481	.482	.540	.555	.471	.489	1																
8	.571	.320	.362	.389	.481	.386	.558	1															
9	.370	.409	.438	.438	.351	.392	.541	.490	1														
10	.335	.471	.495	.589	.415	.441	.488	.408	.596	1													
11	.498	.320	.457	.459	.530	.264	.527	.566	.486	.480	1												
12	.397	.397	.410	.489	.487	.298	.505	.417	.403	.429	.622	1											
13	.381	.497	.497	.551	.415	.479	.463	.309	.377	.520	.461	.514	1										
14	.529	.241	.407	.461	.454	.387	.336	.409	.306	.232	.462	.347	.445	1									
15	.415	.195	.346	.326	.418	.207	.349	.400	.280	.223	.595	.427	.284	.469	1								
16	.473	.347	.376	.399	.449	.346	.470	.450	.369	.410	.531	.456	.367	.492	.483	1							
17	.331	.385	.421	.407	.374	.334	.441	.369	.345	.416	.412	.390	.507	.444	.294	.500	1						
18	.259	.503	.463	.429	.317	.394	.485	.321	.368	.500	.387	.437	.508	.324	.276	.423	.587	1					
19	.288	.401	.276	.298	.284	.321	.354	.335	.275	.377	.247	.284	.284	.253	.198	.348	.291	.321	1				
20	.385	.437	.429	.476	.436	.441	.432	.387	.434	.502	.331	.414	.418	.379	.205	.378	.371	.359	.648	1			
21	.479	.443	.511	.464	.454	.452	.501	.521	.424	.470	.428	.324	.487	.464	.284	.451	.486	.465	.544	.610	1		
22	.217	.406	.414	.418	.302	.292	.478	.361	.445	.492	.431	.359	.417	.332	.309	.400	.388	.425	.277	.420	.504	1	
23	.258	.392	.375	.362	.288	.324	.499	.333	.501	.464	.429	.369	.410	.277	.252	.351	.342	.485	.349	.454	.523	.682	1
24	.278	.415	.401	.368	.402	.308	.504	.344	.421	.464	.393	.360	.447	.262	.198	.378	.358	.399	.267	.442	.485	.682	1

<부록10>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 공동체 참여 역량 2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n=2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1																					
2	.412	1																				
3	.463	.474	1																			
4	.483	.501	.619	1																		
5	.519	.345	.611	.602	1																	
6	.385	.469	.447	.521	.358	1																
7	.481	.482	.540	.555	.471	.489	1															
8	.571	.320	.362	.389	.481	.386	.558	1														
9	.370	.409	.438	.438	.351	.392	.541	.490	1													
10	.335	.471	.495	.589	.415	.441	.488	.408	.596	1												
11	.498	.320	.457	.459	.530	.264	.527	.566	.486	.480	1											
12	.397	.397	.410	.489	.487	.298	.505	.417	.403	.429	.622	1										
13	.381	.497	.497	.551	.415	.479	.463	.309	.377	.520	.461	.514	1									
14	.529	.241	.407	.461	.454	.387	.336	.409	.306	.232	.462	.347	.445	1								
15	.473	.347	.376	.399	.449	.346	.470	.450	.369	.410	.531	.456	.367	.492	1							
16	.331	.385	.421	.407	.374	.334	.441	.369	.345	.416	.412	.390	.507	.444	.500	1						
17	.259	.503	.463	.429	.317	.394	.485	.321	.368	.500	.387	.437	.508	.324	.423	.587	1					
18	.385	.437	.429	.476	.436	.441	.432	.387	.434	.502	.331	.414	.418	.379	.378	.371	.359	1				
19	.479	.443	.511	.464	.454	.452	.501	.521	.424	.470	.428	.324	.487	.464	.451	.486	.465	.610	1			
20	.217	.406	.414	.418	.302	.292	.478	.361	.445	.492	.431	.359	.417	.332	.400	.388	.425	.420	.504	1		
21	.258	.392	.375	.362	.288	.324	.499	.333	.501	.464	.429	.369	.410	.277	.351	.342	.485	.454	.523	.682	1	
22	.278	.415	.401	.368	.402	.308	.504	.344	.421	.464	.393	.360	.447	.262	.378	.358	.399	.442	.485	.682	.648	1

<부록11>

중학교 체육수업 심리 역량 - 공동체 참여 역량 최종(3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n=2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474	1														
3	.501	.619	1													
4	.469	.447	.521	1												
5	.482	.540	.555	.489	1											
6	.409	.438	.438	.392	.541	1										
7	.471	.495	.589	.441	.488	.596	1									
8	.320	.457	.459	.264	.527	.486	.480	1								
9	.497	.497	.551	.479	.463	.377	.520	.461	1							
10	.347	.376	.399	.346	.470	.369	.410	.531	.367	1						
11	.385	.421	.407	.334	.441	.345	.416	.412	.507	.500	1					
12	.503	.463	.429	.394	.485	.368	.500	.387	.508	.423	.587	1				
13	.406	.414	.418	.292	.478	.445	.492	.431	.417	.400	.388	.425	1			
14	.392	.375	.362	.324	.499	.501	.464	.429	.410	.351	.342	.485	.682	1		
15	.415	.401	.368	.308	.504	.421	.464	.393	.447	.378	.358	.399	.682	.648	1	
16	.467	.533	.442	.471	.427	.416	.423	.479	.449	.518	.498	.488	.493	.556	.573	1
17	.437	.547	.476	.512	.381	.490	.371	.446	.539	.553	.491	.488	.508	.562	.556	.637

Abstract

The Conceptualization of 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Competency in Middle School(PEPC-MS) and the Development of Scale

Minkwon Mo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c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eaning of competency has been conceptually transformed into a component of a competitive strategy that includes value beyond the function of a personal dimension or the level of knowledge level. In particular, psychological competency, which is an internal part of human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tudy of competency concepts, and it is of great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at changes are made through continuous and steady education. The educational meaning of psychological competency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can also be expected to increase. On the other hand, prior researches on

curriculum-based competency mainly apply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hich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no scale has been developed that ha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curriculum-based program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PEPC-MS(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Competency in Middle School) was explored and based on this, a scale of the 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competency in middle school was developed.

First, Study 1 conducted a Delphi survey of 14 expert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PEPC-MS derived from literature review to explore the concept of PEPC-MS. We first propose a model consisting of the area of PEPC-MS and a subfactor-specific concept included in each area through a first Delphi survey. Subsequently, the 2nd and 3rd Delphi surveys carried out the validation work on the proposed model to prepare two competency areas, such as self-growth competency and community engagement competency, and to define the concepts for each domain and sub-factor. Specifically, sub-factors of self-growth competency consisted of positive self-awareness, self-management, initiative, and strategic problem-solving, and community engagement competency were derived from respect, cooperative communication, rule compliance, and community consciousness.

Based on this, Research 2 developed and validated the PEPC-MS scale. First of all, a total of 48 sub-factors selected by Delphi investigation expert members were analyzed, and finally, 18 items of self-growth competency and 15 items of community

engagement competency were determined to measure the PEPC-MS scale. The developed scale obtained reliability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nal compatibility and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s. Furthermore, we validate the concentration and discrimination validation, demonstrating that the items contained in each factor are measuring unique concepts that do not overlap with other factors while explaining the factors well. In other words, the PEPC-MS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tool to identify and measure factors related to PEPC-MS according to the model proposed in Study 1.

keywords : 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competency,
self-growth competency, community Engagement competency
Student Number : 2014-30522